

농업·농촌경제동향
1999 겨울

농업관측센터 편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월)로 나누어 작성되고 해당 월의 15일에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전망/관측”)

동향분석팀: 성명환 / 채성훈

연락처: 3299-4366 / 팩스: 965-4396

목 차

< 요약 >

I. 국제경제 동향	
1. 경제성장	
2. 교역량, 환율 및 원유가격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1. 세계 농업과 농정	
2.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III. 국내경제 동향	
1. 거시지표	
2. 물가	
3. 소비	
4. 고용	
IV. 농촌경제 동향	
1. 농촌물가	
2. 농가교역조건	
3. 농업인력	
4. 농산물 수출입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2. 채소류	
3. 과일류	
4. 축산	

V. 농정 이슈

- 1999년 4/4분기 농업 관련 주요 보도 동향
- 1999년 농업인 의식구조조사 및 농정현안 조사 분석 결과
- 계란 및 육계 가격의 폭락원인과 대책
- 중국산 고추·마늘의 생산 및 수출입 동향
- 농산물 협상 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입장
- WTO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이후의 전망과 과제

< 요약 >

I. 국제경제 동향

- 2/4분기에 이어 3/4분기 이후에도 세계경제는 안정적인 성장과 아시아와 유럽의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음. 다만 중남미의 경우에만 불안요인이 남아있음. 러시아와 동유럽도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어 1999년 1.5% 내외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세계교역은 1999년 2.7% 증가에서 2000년 6.1%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아시아와 러시아의 경기회복으로 원자재 및 연료·에너지의 교역증가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됨. 공산품의 경우에도 금년 3.0% 증가에서 2000년 5.9%로 상당폭 증가할 전망.
- 환율은 미국 연착륙에 대비한 국제자본이동으로 원화와 엔화의 강세가 예상되나 단기간의 급격한 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 OPEC의 감산정책 고수와 원유수출국들의 재고감소 및 세계적인 경기회복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12월 17일 현재 현물유가는 WTI는 26.79달러, 브렌트유는 26.54달러, 두바이유는 24.21달러에서 거래됨.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 금년 하반기 세계 기상의 변화로 미국 동부에서는 대두를 중심으로 한발 피해가 발생하고 또 북부의 봄 소맥지대에서는 수확기에 비가 많아 생산량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캐나다에서는 6월에 호우, 9월 하순부터 저온과 장마로 인하여 옥수수과 대두 수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중국은 북부와 동북부에서 8월에 건조가 계속 되어 대두와 옥수수 생육에 영향을 끼쳤지만 작물 생육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호주에서는 소맥 파종기에 적정한 강우로 생육상태가 좋아 소맥과 대맥은 단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확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최근 미국은 농산물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금년에도 농산물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농가지원대책을 마련,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10월 하순, 사상최고인 87달러를 지원하는 「농업긴급원조관련법」에 서명하였음. 이 법은 홍수, 한발, 농산물의 극단적인 가격하락에 의하여 타격을 받은 농가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법에 따라 곡물과 면화 농가에게 총액 55억 4,000만달러의 원조금이 직접 지급됨.
- 최근 세계 곡물수급 상황은 생산량의 감소, 소비량의 증가, 교역량의 증가, 재고량의 감소가 전망되나 세계 곡물 재고율이 18.6%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전체 곡물 수급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소맥과 대두는 주요 생산국의 생산 감소와 재고량 감소가 전망됨. 1999년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 그러나 중·단립종 쌀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III. 국내경제 동향

- 3/4분기 국내경제는 12.3%의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성장속도가 가속되었음. 산업생산은 전년동분기 대비 26.8%로 2/4분기에 비해 4.2% 증가하였음. 다만 9월 이후 산업생산 및 출하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성장세가 다소 진정되는 추세임. 금년 경제성장에 대하여 각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9%대로 전망하였으나 KDI는

4/4분기 우리 경제가 13% 성장하여 연간 10.1%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2000년에는 7.8%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 물가는 급속한 소비와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11월 생산자 물가는 올해 처음으로 상승세를 나타내 0.6% 상승하였고 소비자 물가는 1.4% 상승하였음. 수출물가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평가절상으로 하락하였고 수입물가는 11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됨.
- 9월 이후 실업율은 8월(5.9%)보다 크게 감소한 5.2%로 향후 경제성장은 추가적인 고용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취업자 증가 및 실업률 감소는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세가 확대되어야 하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음.

IV. 농촌경제 동향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월대비 4.6%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2.1% 상승하였음. 전월대비 하락폭이 큰 것은 두류(9.6%), 화훼류(8%) 등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소류(Δ 16.3%), 과일류(Δ 15.2%)의 판매가격이 크게 하락한데 따른 것임. 전월대비 곡물류는 0.4%, 축산물류는 0.6%, 기타농산물은 3.1% 상승함.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로는 3.7% 상승하였음. 가계용품은 보건의료비가 전월대비 6.1% 상승하였으나 다른 품목의 가격지수가 보합 내지 하락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1.1% 상승에 그침. 농업용품중 가축류와 영농광열비는 전월대비 5.5% 상승함. 농촌임료금은 전월대비 2.9% 상승하였음.

- 전월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가 하락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상승하여 11월의 농가교역조건은 악화됨. 10월 패리티 지수는 95.3이었으나 11월에는 89.4로 내려감.
- 쌀 수확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10월 농림업취업자수는 9월보다 94천명 증가한 2,608천명임. 그러나 전년동월 대비로는 62천명 감소함. 11월 귀농가구수는 171호로 전월대비로는 19.6% 증가함. 그러나 전년동기대비로는 33.5% 감소하였으며, 8월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금년 11월까지 농림축산물 수출금액은 누계기준 1,550.2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하였음. 이중 농축산물은 1,265.2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함. 농산물은 892.0백만달러로 1.0% 감소하였으나 축산물은 373.2백만달러로 7.1% 증가하였음. 임산물은 285.0백만달러로 4.9% 증가하였음. 11월까지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을 볼 때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밤, 배, 감귤, 딸기, 토마토, 오이, 고추, 송이버섯의 수출은 증가되었으나 백삼, 사과, 백합, 표고버섯의 수출은 감소됨.
- 소득 및 소비성향의 상승으로 육류, 열대과일 등 대부분의 농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음. 농림축산물의 수입금액은 11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한 6,696.3백만달러 수준으로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축산물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81.4% 증가한 1,108.5백만달러로서 축산물이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농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4,198.7백만달러 수준이고, 임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3.4% 증가한 1,389.1백만달러 수준임. 곡물류의 수입금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파인애플, 오렌지, 레몬 등의 수입금액은 큰 폭으로 늘어남.

V.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 1999년도 1/4분기 농산물 가격은 작년의 전반적인 흉작으로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2/4 분기에는 기상조건이 양호하여 채소류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고, 3/4분기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함. 4/4분기에는 산지 소값의 상승과 닭고기 및 계란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음. 반면 김장채소 가격은 공급부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품목	단위	1998(4/4)	1999(3/4)	1999(4/4)	증감율		비고
		(A)	(B)	(C)	C/A	C/B	
일반미	원/80kg	151,000	165,633	157,467	4.3	△4.9	호남미
보리	원/70kg	77,533	80,033	72,067	△7.0	△10.0	쌀보리
콩	원/70kg	175,267	219,800	222,633	27.0	1.3	백태
감자	원/20kg	19,800	9,500	10,867	△45.1	14.4	수페리어
고구마	원/15kg	13,600	13,800	7,933	△41.7	△42.5	
배추	천원/5톤트럭	2,007	2,669	3,696	84.1	38.3	
무	천원/5톤트럭	2,079	2,442	3,117	50.0	27.0	
마늘	원/kg	3,201	1,732	1,556	△51.3	△10.1	난지형
양파	원/kg	532	357	391	△26.4	10.4	
대파	원/kg	894	954	801	△10.4	△16.2	
건고추	원/600	4,980	4,126	4,126	△17.1	0.0	화건
사과	원/15kg	23,932	22,667	25,447	6.3	12.3	
배	원/15kg	26,091	75,422	28,317	5.2	△62.6	신고
한우	천원/500kg	2,060	2,667	3,000	45.6	12.5	큰수소
성돈	천원/100kg	168	218	181	7.7	△16.8	
쇠고기	원/kg	7,830	9,345	9,155	16.9	△2.0	
돼지고기	원/kg	2,453	2,268	2,763	12.6	21.8	
닭고기	원/kg	1,391	1,151	905	△34.9	△21.3	
계란	원/10개	899	666	662	△26.4	△0.6	

주: 1) 1999년 4/4분기 축산물 가격은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평균가격임.

VI. 농정 이슈

- 최근 계란 및 육계 가격이 폭락하여 생산비 이하로 떨어짐. 이를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산감축 및 소비촉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육계 계열업체가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수매비축 자금지원 등 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또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닭고기 수출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우리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고추·마늘의 대부분은 중국의 산둥성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임. 국내 가격의 변화에 따라 중국산 고추·마늘의 수입량이 변화하고 있음. 현재 국내 고추가격의 안정으로 중국산 고추의 수입은 적고, 국내 마늘가격의 하락으로 중국산 신선·냉장 수입은 없는 상태이며, 중국산 냉동마늘은 「잠정긴급관세」 부과 직전 10~11월에 6,560톤이 급 수입됨으로써 국내 마늘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시애틀 각료회의는 비록 결렬되었지만 차기 농업협상의 추진 방향은 상당히 정립됐다고 평가할 수 있음. 각료회의의 결렬과 상관없이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는 UR 협상에서 정한대로 2000년부터 추가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 앞으로 일정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회원국의 협의에 따라 확정될 예상이지만 우리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나라와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점검해야 할 것임.
- 시애틀에서의 각료선언문 채택이 실패하여 2000년 1월 예정이던 차기 협상의 시작은 불투명해짐.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의장안은 거의 합의되었다”(바세프스키 의장)는 주장과 “선언문 채택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의장안은 무의미하다”(일본, EU)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결렬을 계기로 일본은 WTO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음. 현행 선진국 중심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개도국이 반발, 결렬의 원인이 된 점을 감안하여 개도국을 「그린룸(특정국회의)」에 참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우리 나라도 차기 협상전략을 재구축해야 할 것임. 우선, 135개 가맹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도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둘째,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셋째, 쌀 정책을 비롯한 국내농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I. 국제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2/4분기에 이어 3/4분기 이후에도 세계경제는 북미의 안정적인 성장과 아시아와 유럽의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음. 다만 중남미의 경우에만 불안요인이 남아있음. 러시아와 동유럽도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어 1999년 1.5% 내외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향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미국경제의 연착륙 여부에 달려 있음. 25% 내외의 거품이 형성된 미국증권시장과 20% 정도 과대평가된 달러가 단기간의 급격한 조정을 거칠 경우 아시아의 북미수출 감소와 세계주식시장에 대한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초래될 것임.
- 미국은 3.8%~4%의 실질성장이 예상됨. 2000년에는 2.3%로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은 금년 2.2%, 내년 2.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대규모 재정흑자에 따라 연방정부는 영구적인 감세를 계획하고 있음. FRB는 세차레에 걸쳐 이자율을 상향조정할 바 있으나 당분간은 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로서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저축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과 과도한 개인부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음.
- 일본경제는 매우 완만하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2/4분기 성장율은 연율로 0.9%인 것으로 추정되며, 3/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나 금년 전체로는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선진공업국 중 최대규모인 재정적자로 인해 곤란한 실정이나 소비지출이 3.4% 증가하였고 각종 규제완화가 기대되어 향후 경제성장은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그러나 경기확장이 민간소비가 아닌 수출주도로 일어날 경우 대미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유럽의 2/4분기 실질경제성장은 연율로 1.5% 내외이며 연간 2%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교역은 증가한 반면 국가별 국내소비는 약화되었음. 영국은 2/4분기 연율 1.2%의 성장을 달성하였음.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성장이 돋보이는 반면 독일의 회복세는 미약함.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 경제는 1/4분기에 저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됨.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하였으며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경상흑자 및 재정흑자가 예상됨. 당초 마이너스 7%~8%로 예상되던 경제성장율은 0%로 향상될 전망이며 외채문제도 국제적인 지원에 힘입어 단계적인 완화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다만 인플레이션이 80%에 달하여 상당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체첸사태는 러시아 경제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전망.
- 아시아는 자산가치와 통화의 안정으로 금년 3.2%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 낮은 인플레이션과 경상흑자로 외국인 투자가 재개되고 있어 각국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음. 한국과 태국은 은행구조개혁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기업부채 해결에는 큰 진전이 없음. 인도와 대만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두어 금년 7%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말레이시아는 3%~4%의 성장이 예상됨.
- 중국은 금년 7%의 경제성장을 이룰 전망. 내년 초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가시화될 수 있으나 지역 통화가치의 동반하락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WTO 가입으로 외국기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경제고도화의 계기가 될 것임. 또한 WTO 가입으로 중국은 개도국의 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있음.

- 중남미에서는 페루와 멕시코만이 금년 경제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국가들은 정치적 혼란으로 내년 성장을 예측하기가 어려움. 브라질은 카르도소정부의 재정개혁이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2000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우려됨.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레알화의 붕괴후에도 달러당 1페소의 고정환율제를 택하고 있어 경제회복과 시장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2. 교역량, 환율 및 원유가격

2.1. 교역량

- 세계교역은 1999년 2.7% 증가에서 2000년 6.1%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아시아와 러시아의 경기회복으로 원자재 및 연료·에너지의 교역증가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됨. 공산품의 경우에도 금년 3.0% 증가에서 2000년 5.9%로 상당폭 증가할 전망.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GDP 기준)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세계 ¹⁾	3.5 (3.5)	3.4 (3.4)	1.9 (1.8)	2.7 (2.5)	2.9 (2.7)	3.3 (2.8)
선진국	3.0	3.0	2.2	2.6	2.4	2.7
미국	3.4	3.9	3.9	3.8	2.3	2.9
일본	5.2	1.4	△2.9	1.3	1.4	2.3
EU	1.9	2.8	2.7	1.9	2.8	2.7
개도국	6.1	5.1	1.3	3.3	4.8	5.4
태평양연안국 ²⁾	6.5	5.0	△4.7	4.4	5.0	5.5
한국	6.8	5.0	△5.8	7.5	5.9	5.7
중국	9.8	8.5	7.8	7.1	6.8	7.4
중남미	3.1	5.1	1.1	△1.6	3.0	4.3
동유럽	3.9	3.2	2.2	1.7	3.4	4.4
구소련연방	△3.3	0.7	△3.1	1.2	2.2	3.2

주: 1) 세계 경제성장률에서 ()내의 수치는 DRI 전망치임.

2) 태평양연안국에는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및 태국이 포함됨.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1999.
DRI, *World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1999.

세계 교역량 증가율 및 환율 동향

단위: %

		1997	1998	1999 ¹⁾	2000
교 역 량	전 체	9.7	3.7	2.7	6.1
	원 자 재	5.6	0.9	1.2	6.0
	연료·에너지	1.1	1.1	2.1	7.8
	공 산 품	11.5	4.5	3.0	5.9
환 율	엔/달러	121.0	130.9	116.7	114.4
	마르크/달러	1.73	1.76	1.78	1.68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1999.

2.2. 환율

- 세계 외환시장의 3대 기축통화 중 달러는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증권시장의 거품형성으로 약 25%의 고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당분간 미국의 호황국면이 지속되고 FRB가 고금리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단기간의 급속한 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
- 유러화는 유럽경기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역내 국가의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ECB가 유러화의 약세를 용인하고 있음. EU에 투자한 일본자본들 역시 자국내 투자를 위해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어 당분간 유러화의 약세가 지속될 전망. 독일 마르크의 달러당 환율은 금년 1.78마르크에서 2000년 1.68마르크로 미소한 강세가 예상됨.
- 일본 엔화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FRB의 금리인상 예측에 따른 자본이동으로 강세기조가 이어질 전망. 그러나 2000년 경제회복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여 급속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현재 102~103엔대로 형성되고 있는 엔화강세는 일본경제의 회복뿐만 아니라 달러화의 가치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국제 자본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임.

2.3. 원유가격

- 서부텍사스 중질유(WTI)의 가격은 UN 석유-수출 연계프로그램에 따라 이라크의 석유수출 중단으로 한때 27.35달러 선까지 상승하였으나 현재 26~27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음. 12월 17일 현재 현물유가는 WTI는 26.79달러, 브렌트유는 26.54달러, 두바이유는 24.21달러에서 거래됨.
- 이라크의 석유수출 재개로 국제원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으나 OPEC의 감산정책 고수와 원유수출국들의 재고 감소 및 세계적인 경기회복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OPEC이 2000년 석유생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일일당 1.2백만 배럴의 석유부족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비OPEC이 일일 1백만 배럴을 증산하더라도 석유수요증가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보임.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에너지연구센터는 겨울철 수요증대에 따라 2000년 초까지는 배럴당 26달러 수준으로 전망함. 그러나 WEFA는 배럴당 20달러 수준으로 전망함.

원유 가격 동향 및 전망

단위: 달러/배럴

	1999. 2	1999.9	1999.10	1999. 11	2000 ¹⁾
WTI 유가	11.98	23.74	22.59	25.12	19.9
브렌트 유가	10.49	22.97	22.20	24.64	20.0
두바이 유가	10.07	21.85	21.43	23.12	-

주: 1) WTI는 WEFA, *World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1999. 브렌트유는 Oil Market Prospects, November, 1999, CGES.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1. 세계 농업과 농정¹⁾

1.1. 금년 하반기 세계 기상 상황

- 미국에서는 7월 중순이후 동부와 중서부에서 고온·건조상태가 계속, 특히 동부에서는 대두를 중심으로 한발 피해가 발생함. 또 북부의 봄 소맥지대에서는 수확기에 비가 많아 수확작업이 지체, 단수가 떨어지고, 생산량도 상당한 감소가 예상됨. 특히, 듀란 소맥의 피해가 커서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거나 생산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어 대폭적인 생산 감소가 예상됨.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 탓으로 밭아가 지연, 작황이 악화하고 있음.
- 캐나다는 6월에 호우가 발생, 소맥의 식부가 지체되었지만, 그 후 기상이 호전되고 우려하던 서리 피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동부에서는 9월 하순부터 저온과 장마로 인하여 옥수수과 대두 수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북부와 동북부에서 8월에 건조가 계속되어 대두와 옥수수 생육에 영향을 끼쳤지만, 9월 중순이후 적당한 일조와 강우에 의하여 작물 생육상태는 전반적으로 순조롭고, 겨울 소맥의 식부면적도 늘고 있음. 또 남부에서는 비가 많아 양자강 하류지역에서 홍수피해도 일부 있었지만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었음.
- 기타 아시아지역은 일부지역에 몬순에 의한 홍수가 있었지만 큰 피해

주) 이 자료는 농촌발전연구부 김태곤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자료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e-mail:taeyon@kreisun.krei.re.kr으로 연락.

는 아니었음. 적당한 강우로 쌀을 중심으로 풍작인 국가가 많음. 특히,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봄부터 가을까지 기상이 좋아 쌀 풍작이 예상되며, 소맥은 사상 최고의 생산량이 예상됨. 나머지 국가도 대체로 풍작이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중동에서는 이란이 30년만의 한발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한발로 인한 감산이 예상됨.

-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소맥 파종기에 적당한 강우로 생육상태가 좋아 소맥과 대맥은 단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확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쌀은 장기간 계속된 강우 부족으로 관개용수의 할당량이 감소, 식부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1.2. 인도 쌀수출 감소

- 1999/2000년 인도의 쌀 수출 전망은 바스마티 종 이외에는 그다지 밝지 않음. 인도의 쌀 수출가격은 베트남, 타이, 파키스탄 등의 경쟁국에 비하여 20-30% 정도 높음. 인도 국내에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최저보장가격이 고액이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 또는 세계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한 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품질미(쇄미 비율 25%)의 수출전망은 어두운 편임.
- 기록적인 풍작과 높은 국내가격으로 정부가 쌀 조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편잡, 하리아나 등 북부의 쌀 과잉지역에서는 정부기관에 의한 쌀 조달은 지난 몇 년간에 비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잠정보고에 의하면, 이상 2개 주의 금년도 쌀 수확량은 편잡주가 850만톤, 하리아나주가 260만톤 이상으로서 2개 주 모두 기록적인 풍작임(작년 수확량은 각각 790만톤, 240만톤이었다).
- 바스마티 쌀의 수확량도 금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작년에

가격이 좋은데다 금년에는 생육조건이 양호하고 식부면적이 늘어나 수확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연결됨. 바스마티 쌀의 수확은 통상 11월 15일 이후에 시작되며, 가격은 톤당 232-279달러(작년은 429-476달러)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 가격은 금년도에 바스마티 쌀 수출시에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임. 인도의 바스마티 쌀 수출량은 50만톤 정도로서 주로 중근동, 유럽, 북미 등에 수출되고 있음.

1.3. 필리핀 쌀농업 현황

- 필리핀의 식량청(NFA)은 쌀 비축량을 증가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의 조달량을 늘릴 방침임. 1999/2000년도는 풍작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업부는 수입품보다는 국산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예정임. NFA는 2000년에 쌀 70만톤(조곡기준)을 매입할 예산으로 1억 6,250달러를 계상하고 있음. 금년은 1억 3,750만달러로 60만톤을 매입한 바 있음.
- 2000년도에는 국내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NFA는 쌀 수입에 충당할 비용을 계상하고 있지 않음. 내년도 예상수확량은 조곡기준으로 1,180만톤(정곡기준으로 760만톤)임. 기후만 적합하면 예상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도 보고 있으며, 현재의 법률에서는 NFA는 필리핀 쌀 수입을 독점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쌀 소매가격을 0.55달러 인하한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영향을 받아서 생산자가격은 더욱 하락하여 1개월 전의 가격에 비하여 25%, 지역에 따라서는 37%나 폭락하고 있음. 지난 수 개월의 수확만으로 벼 재배농가는 약 1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농가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NFA는 시장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농가로부터 쌀을 매입함. 그러나 예산과 시설부족으로 매입대상은 수확량의 3.5%에 불과함.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기에 수확한 농가는 쌀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있음.

- NFA는 항상 재정난에 고민하고 있으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필리핀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NFA의 민영화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음.
- NFA가 민영화된다면 공개시장에서 거래자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 거래업자는 유리하게 될 것임. 쌀 거래가 완전히 자유화된다면 필리핀 정부의 가격지지제도는 폐지되기 때문에 소매가격이 상승,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1.4. 중국 농산물가격정책의 전환

- 중국에서는 소맥 등의 식량가격은 생산자가 정부관련 식량기업에 의무적으로 매도할 때의 「계약매입가격」과 「시장가격」이라는 2가지 가격체제로 되어 있음. 매도의무를 이행하면 그 후의 잉여식량은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음. 그러나 공급과잉으로 계약매입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아진 경우에는 식량기업에 의한 매입가격은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호가격」에 의하여 무제한 매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 현재 식량가격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국영 식량기업에 의한 보호매입이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국영 식량기업의 적자 문제가 대두되고, 또 보호가격에 의한 매입이 불철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1998년 6월에 「곡물매입조례」를 제정, 실시하고 있음.
- 이 조례의 구체적인 목적은, ①國務院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곡물매입가격 보증, ②식량기업에 의한 잉여곡물의 무제한 매입 보증, ③식량기업에 의한 적자판매의 엄수 등임. 즉, 이에 의하여 시장가격의 하락을 방지하여 곡물시장의 질서 유지, 곡물 생산자의 이익 보장을 도모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보호매입을 철저히 할 것, 국영 식량기업 적자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 사기업에 의한 매입을 금지할 것 등에 대하여 1998년 말에 다시 지시를 내려 가격정책을 강화하였음.
- 그리고 풍작과 무제한 보호매입에 의하여 비축량이 기록적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수요가 적은 저품질 곡물의 증가, 이에 의한 정부재정 부담의 증대, 품질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농민의 품질향상 의욕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국무원 통지에 의하여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음. 구체적으로는 봄 소맥과 조생종 쌀, 수분함량이 높은 옥수수 등 저품질 곡물의 가격지지 폐지, 맥류 보호가격의 인하, 품질에 의한 가격차 확대, 사기업에 의한 직접매입 허가 등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省별로 수급에 따른 가격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였음.
- 또 계약매입가격을 보호가격수준까지 인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이미 실시하고 있는 省도 있음. 예를 들면 동북부 옥수수 산지 4개 성에서는 보호가격을 인하하여 흑룡강성은 톤당 800元(약 97달러)로 약 1할정도 인하하였음.
- 이와 같은 개혁은 잉여식량의 무제한 매입이라는 종래의 기본방향을 답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지향적 농업생산을 유도하고 있고, 이외에 급경사지 농지를 임지 또는 초지로의 전환, 適地適作, 고품질 식량생산 확대, 공예작물 식부면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또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구제금 대신에 식량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도 잉여식량의 처리라는 의미가 있음.

1.5. 미국 농업긴급원조법 제정

- 최근 미국은 국내 재정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농산물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미국은 「1996년 농업법」을 제정하여 7년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 대신에,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었던 생산조정과 부족불제도를 폐지하는 등 시장 지향적 농업으로 농정개혁을 단행하였음. 동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작물의 식부를 자유화하고, 동시에 가격·소득은 융자단가(loan rate)에 의하여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있지만, 부족불이라는 보다 높은 가격지지기능은 없어진 것임.
- 그래서 농가는 자신이 직접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여 수입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으로 전환됨. 이와 같은 여건에서 곡물수급이 세계적인 기상조건의 혜택으로 완화되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위기에 의한 수출수요 감소, 남미 등에서 수출경쟁력이 향상된 점 등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좋지 않는 요인이 중복적으로 작용하여 곡물가격은 1998년 이후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 이것이 수출증가를 기대하고 있던 미국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여, 1999년의 농산물수출액은 농업법 제정당시인 1996년에 비하여 18%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농업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1998년 가을 약 6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 농가지원을 결정하였음. 그리고 금년에도 농산물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2회째의 농가지원대책을 마련,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10월 하순, 사상최고인 87달러를 지원하는 「농업긴급원조관련법」에 서명하였음.
- 이 법은 홍수, 한발, 농산물의 극단적인 가격하락에 의하여 타격을 받은 농가에게 지난해에 이어서 2회째의 구제조치임. 이 법은 곡물과 면화 농가에게 총액 55억 4,000만달러의 원조금을 직접 지급됨.

- 현재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년산 옥수수과 대두는 1980년대 중반의 농업불황이후 최저의 출하가격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세계적인 곡물 과잉공급과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감퇴에 의하여 곡물가격은 상당히 하락하고 있음. 게다가 농산물 가격은 적어도 2000년 후반까지는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의회와 농업단체도 내년도 다시 농가원조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농가는 현행 「1996년 농업법」에 의하여 식부가 자유화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단지 가격하락에 의한 경영불안에 대해서는 경영안정 대책을 바라고 있음. 클린턴 정부의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1996년 농업법」의 일부 개정을 포함하여 농정의 강화를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의회의 다수당인 동시에 「1996년 농업법」을 제정한 당사자인 공화당은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최선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내년도 대통령 선거도 겨냥한 양당간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1.6. WTO 시애틀각료선언문 채택실패와 향후 전망

- 시애틀에서의 각료선언문 채택이 실패로 끝나 2000년 1월 예정이던 신라운드의 출발은 불투명해졌으며, 일부에서는 미국의 신정권이 발족하는 2001년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의장안은 거의 합의되었다”(바세프스키 의장)는 주장과 “선언문 채택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의장안은 무의미하다”(일본, EU)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됨.
- 결렬을 계기로 WTO 규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음. 현행 선진국 중심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개도국이 반발, 결렬의 원인이 된 점을 감안하여 일본과 EU는 개도국 일부를 포함한 20-30개국의 「그린룸」(특정국회의)을 정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우리 나라도 차기 협상전략을 재구축해야 함. 우선, 135개 가맹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도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둘째,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셋째, 쌀 정책을 비롯한 국내농정을 정비해 두어야 함.

2.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2.1. 세계의 주요곡물 수급 상황

가. 전체곡물

- 1999/00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월 예측치 대비 쌀과 소맥이 약간 줄어들고 옥수수과 대두가 전월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따라서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월 예상치 대비 0.1%, 전년 대비 0.8% 감소한 18억 5,660만톤이 될 전망이다.
- 1999/00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월보다 30만톤 늘어난 18억 5,840톤으로 전망되나 전년대비로는 480만톤 늘어난 수준임. 소비량의 증가와 함께 교역량도 늘어나 1999/00년도 세계 곡물 교역량은 전월대비 0.9%, 전년대비 2.1% 증가한 2억 5,970만톤 수준인 것으로 전망함.
-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여 기말재고량은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0.5% 감소한 3억 4,540만톤으로 전망됨. 세계 곡물 재고율은 18.6%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FAO의 권장 재고율 수준은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전체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 톤

	1997/98 실적치	1998/99 추정치	1999/00 전망치		변동율(%)	
			1999. 11월	1999. 12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1,878.8	1,870.8	1,858.0	1,856.6	△0.8	△0.1
공급량	2,173.9	2,200.8	2,205.5	2,203.8	0.1	△0.1
교역량	250.8	254.4	257.3	259.7	2.1	0.9
소비량	1,843.8	1,853.6	1,858.7	1,858.4	0.3	0.0
기말재고량 (재고율)	330.2 17.9	347.2 18.7	346.8 18.7	345.4 18.6	△0.5	△0.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57, December 10, 1999.

나. 쌀

- 1999/00년도 쌀 생산량은 전월대비 0.2% 감소, 전년대비 2.3% 증가한 3억 9,590만톤으로 전망되고, 소비량은 전월대비 0.1%, 전년대비 1.4% 늘어난 3억 9,460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쌀 수입량의 감소가 전망되어 전체 수입량은 전월대비 2.2%, 전년대비 11.9% 감소한 2억 2,30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3% 늘어난 수준이지만 전월대비로는 1.8% 줄어든 5,870만톤으로 전망됨. 전월대비 재고량 변화를 국가별로 볼 때 중국은 1.5% 줄어들 전망이지만 미국은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 소맥

- 1999/00년도 소맥 생산량은 전월 예측치 대비 0.1%, 전년대비 0.8% 감소한 5억 8,420만톤이나 소비량은 전월대비 0.3% 감소한 5억 8,900만톤으로 전망되어 소비량이 생산량 수준을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 기말재고량은 전월대비 0.5% 증가할 전망이지만 전년대비로는 3.6% 감소한 1억 3,110만톤이 될 전망이다. 유럽의 기말재고량이 전년대비 20.1% 감소가 전망되는 반면 미국은 전년대비 8.9% 증가할 전망이다.

라. 옥수수

- 1999/00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유럽지역의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생산감소로 전년대비 0.7% 감소한 6억 70만톤으로 전망됨. 반면, 소비량은 전년대비 1.9%, 전월대비 0.2% 늘어난 5억 9,380만톤으로 생산량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전망됨.
- 생산량이 소비량을 상회할 전망이어서 기말재고량도 전년대비 6.4% 증가한 1억 1,54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전월대비 유럽의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재고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마. 대두

- 1999/00년도 대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1억 5,430만톤으로 전망됨. 소비량은 1억 5,580만톤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년대비로는 0.6% 감소한 수준임.
-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5% 감소한 2,280만톤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13.7% 늘어날 전망이어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두 재고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2. 국제곡물가격 동향 및 전망

가. 쌀

- 중립종(자포니카 계) 쌀의 국제가격은 1998년 9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9년 7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톤당 556.66달러를 기

록함. 이후 조금씩 하락하여 12월 국제가격(12월 17일 기준)은 전년대비 6.2% 상승, 전월대비로는 1.6% 하락한 톤당 457.45달러 수준임. 앞으로도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다.

- 현재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은 지난 10월까지 계속 하락하여 톤당 234.25달러이었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12월 가격은 전월대비 1.4% 상승한 톤당 235.50달러 수준임. 그러나 앞으로 세계 장립종 쌀 생산증가와 재고량 증가가 전망되어 향후에도 장립종 쌀 가격은 약세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나. 소맥

- 소맥의 국제가격은 1996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1999년 12월 현재(12월 17일 기준) 국제가격은 전년대비 7.4%, 전월대비 9.6% 하락한 톤당 110.97달러임.
- 1998년 낮은 국제가격의 영향으로 식부면적이 감소하여 생산이 감소하고,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전망이지만 세계 기말재고율이 20%를 상회할 전망이어서 당분간 소맥의 국제가격은 약세로 전망됨.

다. 옥수수

- 옥수수의 국제가격 역시 1997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1999년 12월 가격(12월 17일 기준)은 전년대비 16.9%, 전월대비 1.8% 하락한 톤당 85.33달러임.
- 생산량은 감소하고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이지만 기말재고량의 증가 등으로 옥수수의 수급 불안정 요인은 있으나 향후 국제가격은 보합세가 전망됨.

라. 대두

- 대두의 12월 국제가격(12월 17일 기준)은 전년대비 24.4%, 전월대비 116% 하락한 톤당 177.20달러 수준임.
- 1999년 가뭄으로 생산 감소가 전망되고 소비량과 재고량도 줄어들 전망이어서 향후 대두의 국제가격은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곡물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품 목	1996	1997	1998	1999		증감률(%)	
				11월	12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소맥	187.86	153.10	119.90	122.79	110.97	△7.4	△9.6
옥수수	158.84	118.41	102.66	86.85	85.33	△16.9	△1.8
대두	288.20	291.54	234.33	180.10	177.20	△24.4	△1.6
쌀(중립종)	468.13	420.92	430.70	459.66	457.45	6.2	△0.5
(장립종)	415.81	305.53	309.56	234.25	237.50	△23.3	1.4

주: 소맥은 US Portland, White Wheat 1등급 가격이며, 옥수수와 대두는 US Gulf 2등급 가격이고, 쌀 중립종은 U.S. California, Medium 1등급, 장립종은 태국 1등급 가격임. 12월 가격은 12월 17일 기준임.

자료: 한국경제신문, UNICOM.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7/98 실적치	1998/99 추정치	1999/00 전망치		변동률(%)	
			1999. 11월	1999. 12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54.7	53.7	57.4	57.4	6.9	0.0
생산량	391.7	386.9	396.8	395.9	2.3	△0.2
중국	139.1	135.0	141.0	141.0	4.4	0.0
인도네시아	32.1	32.1	32.1	32.1	0.0	0.0
베트남	20.0	19.3	19.8	19.8	2.6	0.0
미국	6.1	6.1	6.9	6.9	13.1	0.0
수입량	24.7	25.3	22.8	22.3	△11.9	△2.2
인도네시아	6.1	3.9	3.0	3.0	△23.1	0.0
일본	0.5	0.8	0.7	0.7	△12.5	0.0
중국	0.3	0.2	0.4	0.4	100.0	0.0
이용량						
소비량	383.3	389.0	394.4	394.6	1.4	0.1
중국	135.9	136.8	138.0	138.0	0.9	0.0
인도네시아	35.2	35.5	35.7	35.7	0.6	0.0
일본	9.2	9.2	9.5	9.5	3.3	0.0
수출량	26.9	26.2	23.7	23.7	△9.5	0.0
태국	6.4	6.1	5.8	5.8	△4.9	0.0
베트남	3.8	4.5	4.1	4.1	△8.9	0.0
미국	3.3	2.7	2.7	2.7	0.0	0.0
기말재고량	54.7	57.4	59.8	58.7	2.3	△1.8
중국	26.7	26.5	27.4	27.0	1.9	△1.5
일본	3.1	2.4	1.6	1.6	△33.3	0.0
인도네시아	3.1	4.0	3.4	3.4	△15.0	0.0
미국	0.9	0.7	1.6	1.6	128.6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57, December 10, 1999.

세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7/98 실적치	1998/99 추정치	1999/00 전망치		변동률(%)	
			1999. 11월	1999. 12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115.0	139.2	136.5	136.0	△2.3	△0.4
생산량	609.3	588.7	584.7	584.2	△0.8	△0.1
중국	123.3	109.7	115.0	115.0	4.8	0.0
미국	67.5	69.3	62.8	62.8	△9.4	0.0
EU-15	94.2	103.0	96.4	96.6	△6.2	0.2
수입량	123.0	120.0	122.7	124.1	3.4	1.1
EU-15	25.8	24.3	25.3	25.3	4.1	0.0
북아프리카	17.7	17.0	16.4	16.4	△3.5	0.0
브라질	6.3	7.0	7.0	7.0	0.0	0.0
이용량						
소비량	585.2	591.9	590.7	589.0	△0.5	△0.3
중국	114.9	116.0	117.0	117.0	0.9	0.0
EU-15	82.6	86.5	88.6	88.3	2.1	△0.3
미국	34.2	37.7	34.2	34.1	△9.5	△0.3
수출량	124.0	120.5	123.8	125.6	4.2	1.5
EU-15	36.0	36.5	37.7	37.7	3.3	0.0
미국	28.3	28.4	29.9	29.3	3.2	△2.0
캐나다	20.1	14.7	17.5	18.5	25.9	5.7
기말재고량	139.2	136.0	130.5	131.1	△3.6	0.5
중국	33.4	27.8	26.3	26.3	△5.4	0.0
EU-15	16.1	20.4	16.3	16.3	△20.1	0.0
미국	19.7	25.7	27.3	28.0	8.9	2.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57, December 10, 1999.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7/98 실적치	1998/99 추정치	1999/00 전망치		변동률(%)	
			1999.11월	1999. 12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92.9	86.5	108.1	108.5	25.4	0.4
생산량	574.9	605.1	600.7	600.7	△0.7	0.0
미국	233.9	247.9	242.3	242.3	△2.3	0.0
중국	104.3	133.0	128.0	128.0	△3.8	0.0
EU-15	38.5	35.0	35.9	35.9	2.6	0.0
수입량	71.1	75.7	73.3	73.3	△3.2	0.0
일본	16.4	16.3	16.3	16.3	0.0	0.0
EU-15	10.2	11.2	10.8	10.8	△3.6	0.0
한국	7.5	7.5	8.3	8.3	10.7	0.0
이용량						
소비량	581.3	583.0	592.7	593.8	1.9	0.2
미국	185.1	185.7	187.5	188.7	1.6	0.6
중국	117.4	117.3	120.0	120.0	2.3	0.0
EU-15	38.9	38.0	38.4	38.4	1.1	0.0
수출량	71.6	75.3	77.5	78.0	3.6	0.6
미국	38.2	50.3	48.9	48.9	△2.8	0.0
아르헨티나	12.2	7.8	9.0	9.0	15.4	0.0
중국	6.2	3.3	5.0	5.0	51.5	0.0
기말재고량						
미국	33.2	45.6	51.8	51.8	13.6	0.0
중국	26.0	38.6	41.9	41.9	8.5	0.0
EU-15	4.3	3.9	2.9	3.2	△17.9	10.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57, December 10, 1999.

세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7/98 실적치	1998/99 추정치	1999/00 전망치		변동률(%)	
			1999. 11월	1999. 12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13.5	21.6	24.3	24.0	11.1	△1.2
생산량	158.1	158.9	154.3	154.3	△2.9	0.0
미국	73.2	74.6	72.8	72.8	△2.4	0.0
브라질	32.5	31.0	31.0	31.0	0.0	0.0
아르헨티나	19.5	19.9	18.5	18.5	△7.0	0.0
수입량	39.0	39.3	40.9	40.9	4.1	0.0
EU-15	16.3	16.1	16.0	16.0	△0.6	0.0
일본	4.9	4.7	4.6	4.6	△2.1	0.0
중국	2.9	3.9	4.3	4.3	10.3	0.0
이용량						
소비량	148.4	156.7	155.8	155.8	△0.6	0.0
미국	47.7	48.8	48.0	48.0	△1.6	0.0
중국	17.5	18.7	18.2	18.2	△2.7	0.0
EU-15	17.0	16.3	16.1	16.0	△1.8	△0.6
수출량	40.5	40.5	41.0	40.9	1.0	△0.2
미국	23.8	21.8	23.5	23.5	7.8	0.0
브라질	8.8	8.9	9.4	9.4	5.6	0.0
아르헨티나	3.2	3.2	2.8	2.8	△12.5	0.0
기말재고량	21.6	24.0	22.8	22.8	△5.0	0.0
미국	5.4	9.5	10.8	10.8	13.7	0.0
아르헨티나	7.2	6.1	4.2	4.2	△31.1	0.0
브라질	6.5	6.0	5.7	5.2	△13.3	△8.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57, December 10, 1999.

Ⅲ. 국내경제 동향

1. 거시지표

- 3/4분기 국내경제는 12.3%의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성장속도가 가속되었음. 산업생산은 전년동분기 대비 26.8%로 2/4분기에 비해 4.2% 증가하였음. 다만 9월 이후 산업생산 및 출하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성장세가 다소 진정되는 추세임.
- 수출과 내수가 전년동분기 대비 각각 29.3%, 26.1% 증가하여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작용함. 9월 이후로는 각각 19.7%, 26%로서 3/4분기에 비해 다소간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음. 제조업가동률은 79.2%로 적정 가동률수준인 80%에 근접하였음.
- 유가상승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약 3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 지속적인 고유가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의 원가상승 압력이 표면화되고 최근 원화 강세까지 가세할 경우 생산 및 수출의 부진이 우려됨.

산업생산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3/4	4/4	1/4	2/4	3/4	9월
GDP	△7.1	△5.3	4.6	9.8	12.3	-
생산	△9.5	△1.6	12.5	22.6	26.8	18.1
(반도체, 자동차제외)	△14.6	△11.7	5.2	-	-	-
출하	△9.6	△2.2	14.1	24.4	27.6	19.7
(수출)	24.4	30.2	21.9	29.7	29.3	26.0
(내수)	△25.4	△18.5	8.8	20.6	26.1	15.1
재고	△10.9	△17.3	△18.6	△16.9	△10.2	△10.2
(전월비)	△3.9	△4.9	△8.9	△0.1	3.3	2.4
재고율	108.0	94.2	85.3	77.2	73.2	72.6
제조업평균가동률	66.7	69.9	71.3	76.8	79.5	79.1

자료: 재정경제부

- 경제활동별 경제성장은 12.6%로 이중 농림어업은 2/4분기에 상승세로 반전된 이래 4.2%의 성장률을 보임.

경제활동별 경제성장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3/4	4/4	연간	1/4	2/4	3/4
전 산 업	△6.6	△5.0	△5.3	4.7	10.4	12.6
농 립 어 업	△7.0	△9.0	△6.3	△7.4	5.3	4.2
제 조 업	△9.1	△4.7	△7.2	10.3	20.4	26.8
서 비 스 업	△6.2	△3.4	△5.4	6.5	10.4	12.4

자료: 재정경제부

- 통화지표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풍부한 유동성 공급기조가 물가상승을 대비한 안정적인 공급으로 전환된 데 따른 영향과 이자율의 상승추세에 따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 M₁(민간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은 10월중 12.8% 증가하여 9월의 24.5% 증가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음. M₂의 증가율은 9월중 전년동월대비 26.9%에서 10월중 24.1%로 소폭 감소. 9월 M₁의 높은 증가율은 추석에 대비한 민간의 현금수요가 많았던데 기인함.

통화지표 (평잔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9					
	5월	6월	7월	8월	9월p	10월p
M ₁	17.3	17.2	14.7	19.6	24.5	12.8
M ₂ (총통화)	31.0	27.4	24.2	24.9	26.9	24.1
MCT	6.7	6.3	6.2	7.7	10.3	10.0
본원통화(조원)	20.9	20.9	21.3	21.5	23.4	23.2

자료: 한국은행

- 시중금리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에 따라 보험세를 유지하고 단기금리를

나타내는 콜금리 및 CD 유통수익률은 안정됨. 특히, 콜금리는 3개월 연속 4.7%를 유지함. 장기금리를 나타내는 회사채유통수익률은 대우 사태 해결을 위한 채권안정기금의 대규모 채권매수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함.

시중자금사정

단위: 월평균, %

	1999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콜금리	4.7	4.8	4.8	4.7	4.7	4.7
CD유통수익률	6.2	6.3	6.8	7.2	7.5	7.3
회사채유통수익률	8.4	8.1	8.6	9.9	10.4	9.1

- 대미환율은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내기는 하나 경상수지 흑자와 단기성 외국인 투자의 차익실현으로 장기적으로는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원화의 평가절상은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하나 국산 제품의 대외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급속한 평가절상은 내년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최근 국제 환율은 원화와 함께 엔화의 동반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음. 엔화의 강세는 대부분의 수출주력업종에서 일본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제품에 대하여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으나 급속한 엔화강세가 나타날 경우 일본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원가상승이 가격경쟁력 상승분을 초과할 것임.

분기별 달러 환율

단위: 원(평균기준환율), %(전년동기동월대비)

	1998	1999				
	4/4	1/4	2/4	3/4	10월	11월
대미환율	1,279.4	1,198.7	1,191.4	1,194.2	1,206.4	1,177.2
원화 절상률(%)	△11.8	25.4	△14.6	9.9	9.8	9.0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환율과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성장률은 낮고 물가상승율은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특히, 금년 경제성장률에 관하여 KDI는 3/4분기 경제전망에서 9.0%로 전망하였으나 유가상승이 진정되고 환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10.1%로 수정. 2000년에는 7.8%후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LG경제연구소는 우리 경제가 금년 9.9%, 내년 6.7%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현대경제연구소는 각각 9.3%, 5.9%로 예측함. 대부분 1999년에는 9%~10%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다소 둔화된 6~6.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물가는 LG경제연구소가 금년 0.9%, 2000년 3.5%로 예측함. 내년의 물가상승률은 금년보다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각 연구기관마다 금년은 250억달러 내외에서 비슷하게 예측하였으나 2000년에 대해서는 최소 87억달러, 최대 217억달러(WEFA)로 예측하는 등 상당한 편차가 있음.

연구기관별 경제 전망

구분	기관명	발표시기	경제성장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	경상수지흑자 (억달러)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국내 기관	LG경제연구소	12	9.9	6.7	0.9	3.5	6.4	261	145
	현대경제연구소	12	9.3	5.9	0.8	3.7	6.3	240	87
	삼성경제연구소	12	9.5	6.5	0.9	3.2	6.3	252	104
	한국개발연구원	12	10.1	7.8	0.8	3.2	-	252	126
국외 기관	WEFA	12	7.5	5.9	0.7	3.1	-	293	217

2. 물가

-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도 동반하여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물가가 잠재성장률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것은 실질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시됨.
 -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과열 문제와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는 금융위기 동안 잠재성장률이 크게 낮아져 급속한 경제성장은 공급능력을 초과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반영함.
 - 그러나 높은 실업률(5~6%)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성장속도를 줄이기보다는 공급능력 확충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11월 생산자 물가는 0.6% 상승하여 금년 들어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섬.
 - 원재료의 가격상승률은 3/4분기 2.6% 소폭 상승한데 이어 10월 12.4%, 11월 15.2%로 크게 상승함.
 - 중간재 및 최종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하락폭은 크게 둔화되었음. 10월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3.6%, 0.8% 하락하였으며, 11월에는 각각 1.4%, 0.7% 하락함.
 - 물가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금리인상과 통화환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채권시장의 안정성과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외환시장을 통한 물가관리에 비중이 두어질 것으로 판단됨.

- 하락세를 보이던 공산품 생산자물가가 11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며, 농림수산물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상승폭은 완만함.
 - 농림수산물 중 채소류는 작황부진과 김장수요에 의해 배추(65.8%), 무(37.4%) 등을 중심으로 2.7% 상승함.
 - 전력·수도·가스의 생산자물가는 10월 이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어 10월 1.4%, 11월 5.4%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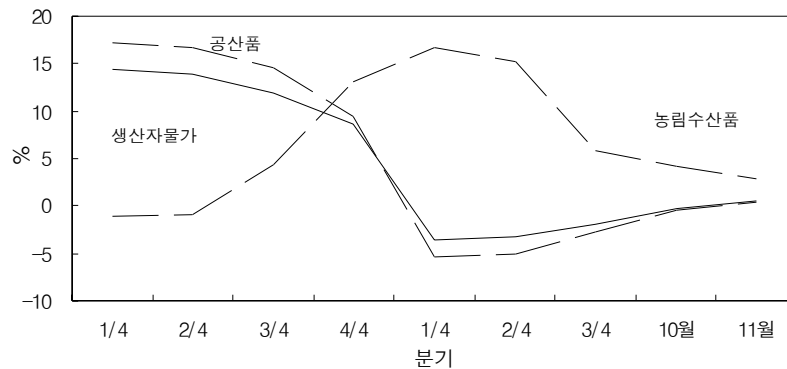
품목별 생산자 물가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998	1999				
	4/4	1/4	2/4	3/4	10월	11월
농림수산물	13.1	16.7	15.3	5.8	4.1	2.8
광 산 품	8.0	6.2	0.2	△1.0	△0.8	△0.4
공 산 품	9.5	△5.4	△5.0	△2.8	△0.5	0.4
전력수도가스	8.1	0.2	△1.4	△1.0	1.4	5.4
원 재 료	△0.7	△31.2	△10.2	2.6	12.4	15.2
중 간 재	11.2	△16.2	△11.5	△6.8	△3.6	△1.4
최 종 재	12.1	△1.1	△0.8	△0.7	△0.8	△0.7
전 체	8.6	△3.5	△3.3	△1.9	△0.2	0.6

자료: 한국은행

품목별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대비)



- 10월과 11월의 소비자물가는 원유가 상승과 채소류 출하부진에 따른 농림수산물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 가격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서비스 물가가 하락하여 각각 1.2%, 1.4% 상승에 그쳤음.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의 10월과 11월 물가상승률은 3.2%, 3%를 보여 물가불안이 우려됨.
- 11월 소비자물가는 공공서비스가 3.1% 증가하고 농림수산물의 물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1.4%(전월대비 △0.2%)의 상승률을 보임. 공공서비스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의료보험수가,

도시가스 등의 가격이 현실화된 데 따른 것임.

- 품목별로는 배추(80.3%), 무(38.1%), 쇠고기(한우: 38.6%) 등은 상승하였으나 마늘(△31.6%), 닭고기(△22.6%), 감자(△18.1%) 등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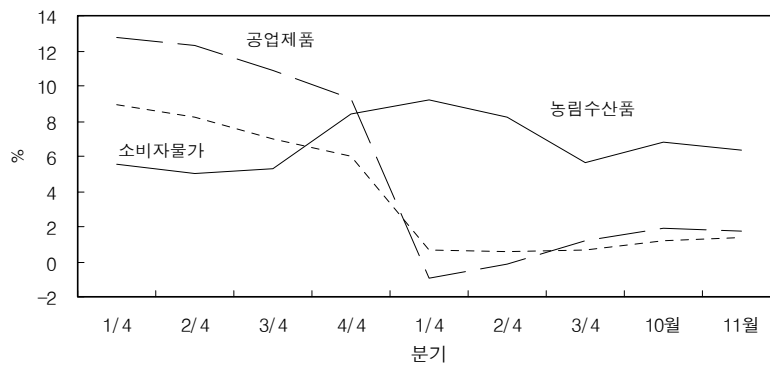
품목별 소비자물가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998		1999				
	3/4	4/4	1/4	2/4	3/4	10월	11월
상 품	9.3	8.6	1.8	2.2	2.4	3.2	3.0
농림수산물	5.3	8.4	9.2	8.2	5.7	6.8	6.4
공업제품	10.9	9.3	△0.9	△0.1	1.2	1.9	1.7
서비스	4.6	3.2	△0.4	△1.2	△1.2	△0.9	△0.3
집세	0.0	△1.6	△3.2	△4.4	△4.6	△4.4	△4.1
공공서비스	9.5	7.9	3.3	1.9	1.1	1.5	3.1
개인서비스	4.3	3.1	△1.2	△1.5	△0.8	△0.6	△0.4
전체	7.0	6.0	0.7	0.6	0.7	1.2	1.4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품목별 소비자물가



- 10월과 11월 수출물가는 수확감소와 농산품의 수요증가로 농림수산품이 전년동월 대비 9.8%, 12.5% 상승(전월대비 4.1%, 1.2% 상승)하였으나 공산품이 각각 9.8%, 7.4% 하락하여 전체적으로는 7.2% 하락함(전월대비 1.5% 하락).
- 공산품과 가공단계별 수출물가가 하락한 것은 유가 등 원가상승보다

환율의 하락이 더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며, 국내 수출업체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됨.

품목별 수출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998	1999				
	4/4	1/4	2/4	3/4	10월	11월
농림수산물	0.9	△23.1	△8.8	4.0	9.8	12.5
공 산 품	5.8	△33.0	△19.5	△11.7	△9.8	△7.4
원 자 재	1.7	△34.9	△21.2	10.3	△5.1	△2.5
자 본 재	3.1	△35.1	△21.0	△14.6	△16.1	△13.6
소 비 재	12.7	△29.2	△16.2	△12.1	△13.5	△11.2
전 체	5.7	△32.9	△19.3	△11.5	△9.6	△7.2

자료: 한국은행

- 수입물가는 10월까지 하락추세(△1.5%)가 이어졌으나 11월 들어 상승세(1.8%)로 반전됨.
 - 농림수산물, 공산품, 소비재는 각각 10.6%, 3.7%, 6.2% 하락함.
 - 원자재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11월에 4.1% 상승함.
 - 자본재는 원화강 세에도 불구하고 부품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임.

품목별 수입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

	1998	1999				
	4/4	1/4	2/4	3/4	10월	11월
농림수산물	7.2	△24.4	△17.6	△13.8	△13.1	△10.6
공산품	10.4	△26.7	△15.9	△7.4	△5.9	△3.7
원자재	4.2	△31.6	△16.6	△3.8	0.0	4.1
자본재	16.0	△14.9	△7.2	△4.7	△6.1	△5.6
소비재	15.6	△15.0	△8.9	△4.9	△6.8	△6.2
전체	6.7	△28.1	△14.6	△4.0	△1.5	1.8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3. 소비

- 3/4분기 이후 도소매 판매 및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2/4분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커지고 있음. 상반기 민간소비의 증가는 금융위기동안 억제되었던 소비가 지연되어 나타난 반등으로 1997년 수준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으나 하반기 이후의 민간소비는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경제성장과 장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3/4분기 도소매 판매는 전년동분기 대비 16.9%,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23.8% 증가함. 특히, 내구재의 경우 2/4분기의 32.3% 증가에 비하여 두 배에 가까운 60.8%로 크게 상승함. 비내구재의 경우는 전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0월 도소매 판매는 15.7% 증가하였고 내수용 소비재출하는 26.2% 증가하였음. 이중 내구재는 54.8%, 비내구재는 12.9% 증가함.
 - 내구소비재의 경우 휴대용전화기(66.4%), 승용차(122.9%), 정수기(218.7%)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경승용차(△23.3%), 유선전화기(△21.7%)는 하락함.
 - 비내구소비재는 남녀기성복(30.6%), 냉동식품(40.4%), 화장품(14.2%)이 증가하였고 가공어패류(△44.7%), 등유(△6.9%), 가공해조류(△41.1%) 등은 하락하였음.

소비 동향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1998		1999			
	3/4	4/4	1/4	2/4	3/4	10월
도소매 판매	△15.1	△8.3	6.0	10.8	16.9	15.7
내수용 소비재출하	△22.3	△18.4	13.1	17.1	23.8	26.2
(내구재)	△32.8	△21.5	39.3	32.3	60.8	54.8
(비내구재)	△17.2	△16.9	3.2	10.4	8.7	12.9

자료: 재정경제부

- 3/4분기 도시근로자 소득 및 소비지출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4분기 소득증가율은 0.4%에 불과하였으나 3/4분기에는 8.5%로 크게 높아짐.

- 3/4분기 소비지출은 전년동분기 대비 17.9%로 2/4분기보다 증가율이 커졌음. 이중 식료품의 소비증가율은 15.2%이며, 2/4분기에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보인 주거비지출은 3/4분기에는 9.5%로 큰 폭으로 상승함.
 - 소득증가율 대비 소비지출 증가율이 더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평균소비성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 비목별로는 식료품 이외에 교육비(13.1%), 보건의료비(11.7%), 피복신발(21.3%), 교양오락비(21.2%) 등이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교통통신비는 33.2%로 상승폭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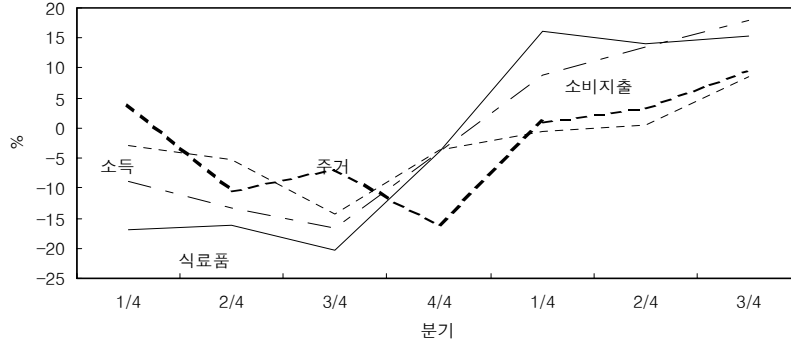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1998		1999		
	3/4	4/4	1/4	2/4	3/4
소득	△14.4	△3.8	△0.5	0.4	8.5
소비지출	△16.8	△4.0	8.9	13.4	17.9
식료품	△20.2	△4.0	16.1	14.0	15.2
주거	△6.9	△16.2	0.9	3.3	9.5

자료: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4. 고용

- 9월 이후 고용동향은 경제활동인구 및 산업별 취업자가 모두 증가하였고 실업자는 감소하였음. 실업율은 8월(5.9%)보다 크게 감소한 5.2%로 향후 경제성장은 추가적인 고용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취업자 증가 및 실업률 감소는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 9월 경제활동인구는 22,069천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1.6%, 전체 취업자수는 21,000천명, 실업자는 1069명으로 실업률은 5.2%임.
 - 농림어업취업자수는 2,597명으로 전월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으며 제조업취업자는 4,138명으로 132천명 증가하였음.
- 10월 경제활동인구는 22,176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1.8%, 취업자는 21,155명임.
 - 농림어업취업자수는 2,690명, 제조업은 4,197명이며 건설업은 1,590명임.

고용 활동

단위: 천명, %

	1997	1998	1999		전월대비 증감
			9월	10월	
경제활동인구	21,604	21,390	22,069	22,176	107
(경제활동참가율)	(62.2)	(60.7)	(61.6)	(61.8)	(0.2)
취업자	21,048	19,926	21,000	21,155	155
·농림어업	2,324	2,424	2,597	2,690	93
·광공업	4,501	3,904	4,160	4,217	57
(제조업)	(4,475)	(3,884)	(4,138)	(4,197)	(5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4,223	13,598	14,243	14,248	5
(건설업)	(2,004)	(1,577)	(1,601)	(1,590)	(△11)
실업자	556	1,463	1,069	1,021	△48
실업률(계절조정)	2.6	6.8	5.2	5.0	△0.2

자료: 재정경제부

IV. 농촌경제 동향

1. 농촌물가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월대비 4.6%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12.1% 상승하였음. 전월대비 하락폭이 큰 것은 두류(9.6%), 화훼류(8%) 등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소류(Δ 16.3%), 과실류(Δ 15.2%)의 판매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임.
- 곡물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5.4% 상승한 수준임. 미곡은 전월대비 0.1%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5.5% 상승한 수준임. 전월대비 맥류, 잡곡류의 가격상승률은 거의 변화가 없음. 서류는 전월대비 10%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보다는 16.9% 하락한 수준임.
- 청과물은 과실류의 판매가격이 전월대비 15.2%(전년동월대비 4.6% 상승),채소류가 전월대비 16.3%(전년동월대비 14.5% 상승) 하락하여 전체적으로는 전월대비 16% 하락함.
- 축산물은 가축과 유란이 10월까지 모두 하락하였으나 11월에는 전월대비 가축이 0.5%, 유란이 1.4%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6% 상승함으로써 판매여건이 개선됨.
- 기타농산물의 판매가격은 전월보다 3.1% 상승하였음. 화훼류는 8월 이후 지속적으로 판매가격지수가 개선되어 11월에는 전월대비 8%의 높은 상승률을 보임. 특용작물은 전월대비 2.5%,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하였음.

농가판매가격지수의 변화

	가중치	1998. 11	1999.10	1999.11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총 지 수	1,000.0	101.5	119.3	113.8	12.1	△4.6
곡물·서류	323.3	124.3	130.5	131.0	5.4	0.4
미 곡	288.7	125.6	132.6	132.5	5.5	△0.1
맥 류	13.6	105.5	110.8	110.8	5.0	0.0
잡 곡	3.7	115.2	116.4	117.0	1.6	0.5
두 류	7.8	115.1	139.8	153.2	33.1	9.6
서 류	9.5	123.0	92.9	102.2	△16.9	10.0
청 과 물	296.6	95.2	126.8	106.5	11.9	△16.0
채 소	165.2	99.7	136.4	114.2	14.5	△16.3
과 실	87.0	84.4	104.1	88.3	4.6	△15.2
축 산 물	322.3	84.1	104.1	104.7	24.5	0.6
가 축	294.7	80.5	103.1	103.6	28.7	0.5
유 란	27.6	122.6	114.9	116.5	△5.0	1.4
기 타 농 산 물	57.8	103.6	102.2	105.4	1.7	3.1
특용작물	48.8	101.8	100.0	102.5	0.7	2.5
화 훼	6.7	115.9	117.2	126.6	9.2	8.0
부 산 물	2.3	106.3	106.3	106.3	0.0	0.0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월대비 1.7%, 전년동월대비 8.1% 상승함. 가계 용품은 식료품비가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5.3% 상승하였으며, 보건의료비도 전월대비 6.1% 상승함. 다른 품목의 가격지수는 보험 내지 하락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1.7% 상승에 그침.
- 농업용품중 가축류는 전월대비 1.3% 증가에 불과하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0.6%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이는 최근 송아지 가격의 폭등에 따른 것임. 영농광열비가 전월대비 5.5% 상승한 이외 다른 품목은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음.

- 농촌임료금은 전월대비 2.9%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27.9%나 상승하였음. 특히, 농업노임과 도정료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27.4%, 57.5%로 대폭적인 상승이 있었음.

농가구입가격지수의 변화

	가중치	1998.11	1999.10	1999.11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총 지 수	1,000.0	117.8	125.2	127.3	8.1	1.7
가 계 용 품	524.9	118.8	121.8	123.2	3.7	1.1
식 료 품	97.6	116.3	122.2	122.5	5.3	0.2
피 복 비	39.1	111.9	115.6	115.5	3.2	△0.1
주 거 비	48.7	98.2	97.7	97.2	△1.0	△0.5
가 계 광 열	35.6	157.6	169.4	175.3	11.2	3.5
보 건 의 료	69.8	120.6	120.2	127.5	5.7	6.1
교 육 교 양 오 락	121.5	121.0	123.6	123.6	2.1	0.0
교 통 통 신	76.5	117.6	117.5	118.0	0.3	0.4
기 타 잡 비	36.1	114.6	118.5	118.3	3.2	△0.2
농 업 용 품	403.7	118.4	128.4	130.9	10.6	1.9
종 자 류	17.4	100.7	100.7	100.7	0.0	0.0
비 료 류	24.3	149.6	149.6	149.6	0.0	0.0
농 약 류	24.6	146.1	130.3	130.3	△10.8	0.0
농 기 구	83.6	153.5	153.8	153.8	0.2	0.0
영 농 광 열	13.9	149.8	164.8	173.9	16.1	5.5
가 축 류	129.9	80.1	124.7	131.6	64.3	5.5
사 료 류	77.7	119.0	107.5	107.5	△9.7	0.0
영 농 자 재	32.3	131.7	109.5	109.6	△16.8	0.1
농 촌 임 료 금	71.4	106.9	132.8	136.7	27.9	2.9
농 업 노 임	31.7	108.4	135.7	138.1	27.4	1.8
기 타 임 금	2.8	98.8	104.0	106.7	8.0	2.6
도 정 료	8.2	110.7	158.6	173.4	56.6	9.3
농 기 계 임 차	28.7	105.2	125.0	127.5	21.2	2.0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2. 농가교역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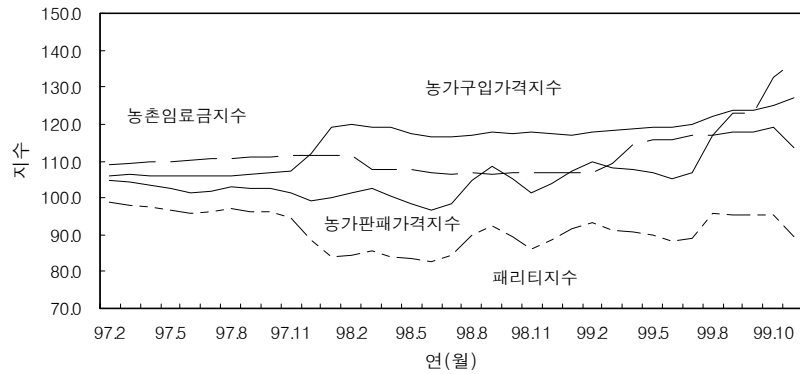
- 전월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가 4.6%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7% 상승하여 전월대비 농가교역조건은 악화됨.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지수가 10월 95.3에서 11월에는 89.4로 내려감.

농가교역조건 변화

	1998.11	1999.10	1999.11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101.5	119.3	113.8	12.1	△4.6
농가구입가격지수(B)	117.8	125.2	127.3	8.1	1.7
패리티지수(A/B*100)	86.2	95.3	89.4	3.7	△6.2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촌물가지수의 변동추이



3. 농업인력

- 10월 농림업 취업자는 9월 2,514천명보다 94천명 증가한 2,608천명으로 증가율은 전월대비 3.7%, 전년동월대비 △2.3%임.

- 9월보다 농림업 취업자수가 증가한 것은 쌀 수확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제조업부문으로 농촌인력이 흡수되었기 때문임.

농림업 취업자수 동향

단위: 천명

	1997	1998.10	1999		증감률(%)	
			9월	10월	전년동월비	전월대비
경제활동인구	21,604	21785	22,069	22,176	1.8	0.5
전산업취업자	21,048	20248	21,000	21,155	4.5	0.7
농림업취업자	2,215	2670	2,514	2,608	△2.3	3.7

자료: 통계청

- 11월 귀농가구수는 171호로 전월대비로는 19.6% 증가함. 그러나 전년동기대비로는 33.5% 감소하였으며, 8월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귀농가구 동향

단위: 호

	1998		1999				증감률(%)	
	년간	1-11월	1-11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기대비	전월대비
귀농가구수	6,409	5,967	3,966	177	143	171	△33.5	19.6

자료: 농림부 농촌인력과

4. 농산물 수출입

4.1. 수출동향

- 금년 11월까지 농림축산물 수출금액은 누계기준 1,550.2백만달러로 전

년동기대비 1.9% 증가하였음.

- 농축산물은 1,265.2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함. 이중 농산물은 892.0백만달러로 1.0% 감소하였으나 축산물은 373.2백만달러로 7.1% 증가하였음.
- 임산물은 285.0백만달러로 4.9% 증가하였음.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1998	1998. 1~11	1999. 1~11	증감율(%)
농림축수산물	3,047.1	2,755.6	2,910.0	5.6
농림축산물	1,682.9	1,521.5	1,550.2	1.9
농축산물	1,390.9	1,249.9	1,265.2	1.0
- 농산물	1,005.6	901.3	892.0	△1.0
- 축산물	385.3	348.6	373.2	7.1
임 산 물	292.0	271.6	285.0	4.9
수 산 물	1,364.1	1,234.1	1,359.8	10.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11월까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밤, 배, 감귤, 딸기, 토마토, 오이, 고추, 송이버섯의 수출은 증가되었으나 백삼, 사과, 백합, 표고버섯의 수출은 감소됨.
- 돼지고기는 11월까지 일본으로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누계액이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한 311.9백만달러 수준임. 최대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303.9백만달러로 97.4%를 차지함. 닭고기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김치는 일본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단가도 개선되고 있음. 11월까지 누계기준 70.6백만달러(22.2천톤)로 금액으로는 84.1%, 중량으로는 57.3% 증가하였음.

- 홍삼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한 29.9백만달러로서 이중에서 53.5%가 홍콩, 39.3%가 대만으로 수출되었음. 특히, 백삼은 전년동기 대비 18.3% 감소한 3.2백만달러로 대부분이(72.2%) 홍콩시장으로 수출되었음.
- 채소류는 오이, 고추, 토마토, 딸기 등 신선채소류를 중심으로 주수출 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음. 전년동기대비 오이는 6.9백만달러로 109.7%, 고추는 11.9백만달러로 128.2%, 딸기는 7.6백만달러로 93.6%, 토마토는 13.5백만달러로 126.0% 증가함.
- 과실류중 배의 수출액은 10.9백만달러로서 전년동기대비 63.3% 증가하였고 이중에서 약 70%가 미국으로 수출됨. 감귤은 캐나다와 일본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나 사과는 주수출국인 동남아시아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73.7% 감소함.
- 화훼류중 장미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한 5.8백만달러였으나 백합은 12.5% 감소한 2.6백만달러 수준임. 화훼류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됨.
- 버섯류중 송이버섯의 수출액은 주수출국인 일본의 수입수요가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31.7% 증가한 44.6백만달러였으나 표고버섯은 11.5% 감소한 7.5백만달러 수준임. 표고버섯은 대부분 일본과 홍콩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음

주요 품목의 수출금액

품목	수출액(천달러)					증감율(%) '99/'98
	1996	1997	1998	1998. 11	1999. 11	
돼지고기	154,485	243,899	311,777	280,834	311,905	11.1
닭고기	662	1,227	1,605	1,414	1,933	36.7
김치	33,387	39,655	43,931	38,360	70,614	84.1
홍삼	44,489	35,443	31,801	30,740	29,959	△2.5
백삼	5,075	7,863	7,804	3,804	3,180	△18.3
사과	10,134	6,345	3,538	2,926	769	△73.7
배	9,570	9,180	7,731	6,664	10,880	63.3
감귤	1,232	2,955	5,045	3,941	6,453	63.7
딸기	1,605	2,743	4,096	3,963	7,572	93.6
토마토	4,013	3,742	7,592	5,965	13,483	126.0
오이	5,033	3,184	5,489	3,282	6,883	109.7
고추	4,439	5,067	6,890	5,207	11,880	128.2
백합	981	2,054	3,358	2,979	2,606	△12.5
장미	99	48	3,420	2,800	5,572	99.0
송이버섯	30,306	30,094	34,042	33,896	44,631	31.7
표고버섯	6,926	8,276	8,704	8,495	7,515	△11.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4.2 수입동향

- 소득 및 소비성향의 상승으로 육류, 열대과일 등 대부분의 농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음. 농림축산물의 수입금액은 11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한 6,696.3백만달러 수준으로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축산물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81.4% 증가한 1,108.5백만달러로서 축산물이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 농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4,198.7백만달러 수준임.
- 임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3.4% 증가한 1,389.1백만달러 수준임.

농림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1998	1998. 1~11	1999. 1~11	증감율(%)
농림축수산물	7,021.2	6,260.9	7,738.1	23.4
농림축산물	6,438.7	5,762.0	6,696.3	16.2
농축산물	5,423.5	4,856.7	5,307.2	9.2
- 농산물	4,696.6	4,245.6	4,198.7	△1.1
- 축산물	726.9	611.1	1,108.5	81.4
임산물	1,015.2	905.3	1,389.1	53.4
수산물	582.5	498.9	1,041.8	108.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곡물류의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함. 곡물류중 옥수수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4.5% 감소한 800.6백만달러로 대부분 미국으로부터(83.2%) 수입하며, 중국으로부터도(12.1%) 일부 수입함. 밀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한 498.9백만달러임. 대두 수입액은 20.1% 감소한 259.6백만달러, 대두박은 9.7% 감소한 169.6백만불 수준임.
-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입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쇠고기는 전년동기대비 111.5% 증가한 441.3백만달러로서 미국으로부터 60%, 호주로부터 30%를 수입함.
 - 돼지고기는 전년동기대비 69.9% 증가한 208.6백만달러로서 덴마크로부터(29.8%) 가장 많이 수입하며, 다음으로 미국, 프랑스, 캐나다 순임.
 - 닭고기는 전년동기대비 141.2% 증가한 36.5백만달러로서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태국으로부터도 23.2%를 수입함.
- 과실류는 파인애플, 오렌지, 레몬 등 열대과일의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였음.

- 파인애플은 전년동기대비 80.7% 증가한 17.5백만달러 수준임. 필리핀 으로부터 78.6%, 태국으로부터 17.7%를 수입함.
 - 오렌지는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한 72.7백만달러로서 미국으로부터 46%, 브라질로부터 40%를 수입함.
 - 레몬은 전년동기대비 28.8% 증가한 4백만달러 수준임. 주로 미국으 로부터 수입함.
- 그외 금융위기 이후 축산농가의 감소로 배합사료와 알팔파의 수입이 줄었으나 금년 들어 물량과 금액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품목의 수입금액

품목	수입액(천달러)					증감율(%) '99/'98
	1996	1997	1998	1998.11	1999.11	
쇠고기	413,022	479,844	268,402	208,616	441,296	111.5
돼지고기	125,029	236,115	142,623	122,828	208,629	69.9
닭고기	14,937	31,227	19,735	16,975	40,942	141.2
옥수수	1,268,518	1,253,772	913,829	838,607	800,598	△4.5
밀	617,005	594,236	663,534	605,216	498,945	△17.6
대두	393,784	514,629	379,351	325,105	259,614	△20.1
대두박	239,574	223,746	207,062	187,754	169,582	△9.7
파인애플	20,114	22,096	11,116	9,676	17,486	80.7
오렌지	70,629	92,685	68,605	66,143	72,657	9.8
레몬	4,000	5,265	3,367	3,106	3,999	28.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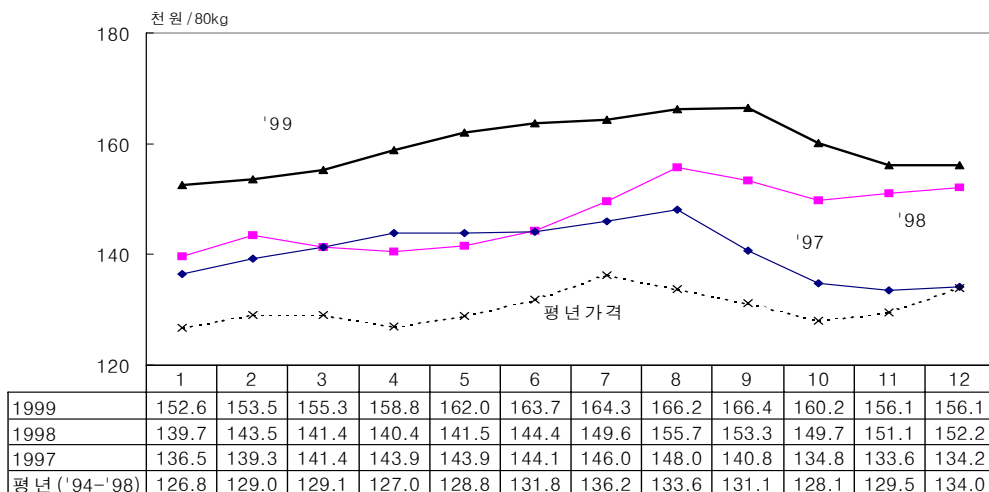
Ⅵ.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²⁾

1.1. 쌀

- 1999 양곡년도의 쌀 총소비량은 511만톤(식용 458, 가공용 17, 기타 36)으로 추정되며, 총공급량은 이월량 81만톤, 생산량 510만톤, MMA 수입량 19만톤 등 총 610만톤임. 양곡년도말 재고량은 98만톤(소비량의 19%)으로서 적정 재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1999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8년의 99.2kg보다 1.4% 줄어든 97.8kg으로 전망됨.
- 금년 수확기 이후 쌀 가격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음. 4/4분기의 쌀 도매가격은 80kg당 15만 7,467원(호남미, 상품 기준)으로 3/4분기 16만 5,633원보다 약 5%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4/4분기 15만 1,000원보다는 4.3% 높은 수준임.

쌀 도매가격 동향 (호남미, 상품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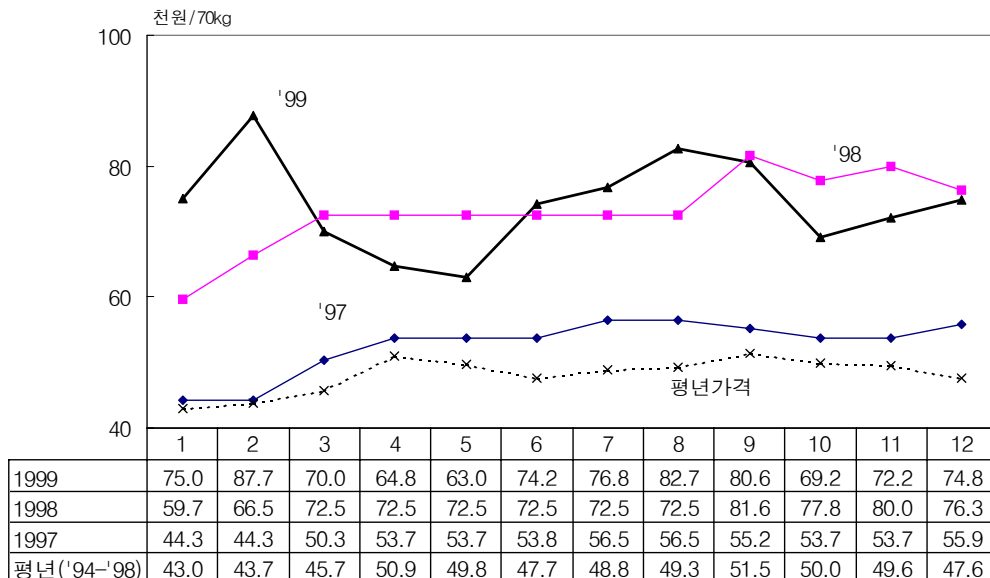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주)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성명환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자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e-mail: mhsung@kreisun.krei.re.kr으로 연락

1.2. 보 리

- 금년산 보리 생산량은 23만 5천톤으로 이는 작년 생산량보다 27.3% 증가한 것이며, 이중에서 쌀보리·겉보리는 58.8%이고 맥주보리는 41.2%를 점하고 있음. 금년 1~11월의 보리 수입량은 13만 9,629톤으로 작년 동기 수입실적 9만 7,274톤의 약 1.4배임. 1999년 1인당 연간 보리 소비량은 1998년 수준과 비슷한 1.5kg으로 전망됨.
- 작년 9월 이후 하락추세에 있던 보리 가격은 6월에 상품성 높은 햇보리가 출하되면서 상승하기 시작하여 금년 8월 보리 도매가격은 70kg 당 8만 2,700원(쌀보리, 상품 기준)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10월에는 6만 9,200원 수준임. 11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12월 현재 7만 4,800원을 유지하고 있음. 4/4분기의 보리 도매가격은 70kg 당 7만 2,067원으로 3/4분기 8만 33원보다는 10%, 작년 4/4분기 7만 7,533원보다는 7%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보리 도매가격 동향 (쌀보리,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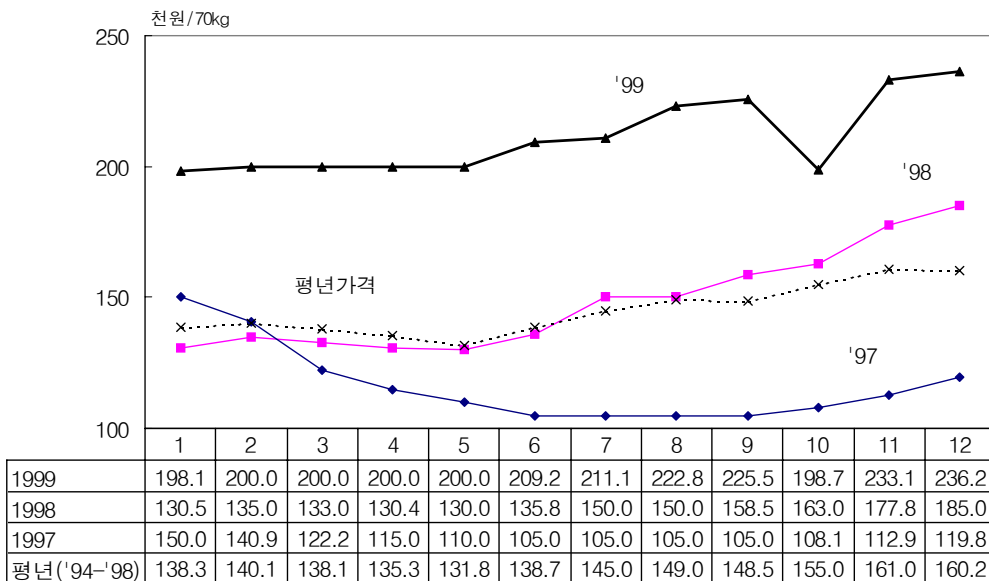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3. 대 두

- 작년 대두 생산량은 14만톤으로 1997년보다 10% 감소하였으며, 수요 감소로 인하여 금년 1~11월의 수입량도 120만톤으로 작년 동기 141만톤보다 약 15% 감소함. 1999년 1인당 연간 대두 소비량은 1998년 9.4kg 수준보다 약간 증가한 9.5kg으로 전망됨.
- 대두 도매가격은 작년 6월부터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12월 현재 70kg 당 23만 6,200원(상품 기준)으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4/4분기 도매가격은 22만 2,633원으로 3/4분기 21만 9,800원보다 1.3%, 작년 4/4분기보다는 27% 높은 수준임.

콩 도매가격 동향 (국산 백태, 상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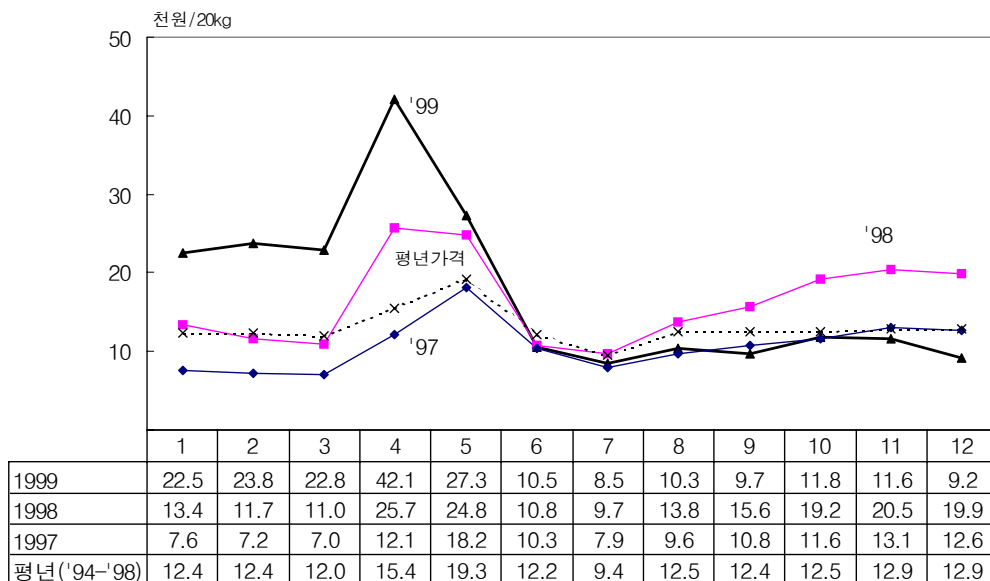
1.4. 감 자

- 작년 감자 생산량은 1997년보다 재배면적이 9% 줄어든데다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은 1997년보다 12% 감소한 56만톤(생서 중량 기준)

임. 금년 1~11월의 수입량은 4만 8,818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60% 증가함.

- 작년 생산감소로 도매가격이 작년 8월부터 상승하여 시작하여 4월에는 20kg당 4만 2,100원(슈퍼리어, 상품 기준)까지 폭등함. 금년산 봄감자의 출하가 늘어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어 12월 감자 도매가격은 20kg당 9,200원으로 평년가격 이하임. 4/4분기 도매가격은 1만 867원으로 3/4분기 9,500원보다는 1.3% 높은 수준이지만 작년 4/4분기보다는 45.1%가 낮은 수준임.

감자 도매가격 동향 (슈퍼리어,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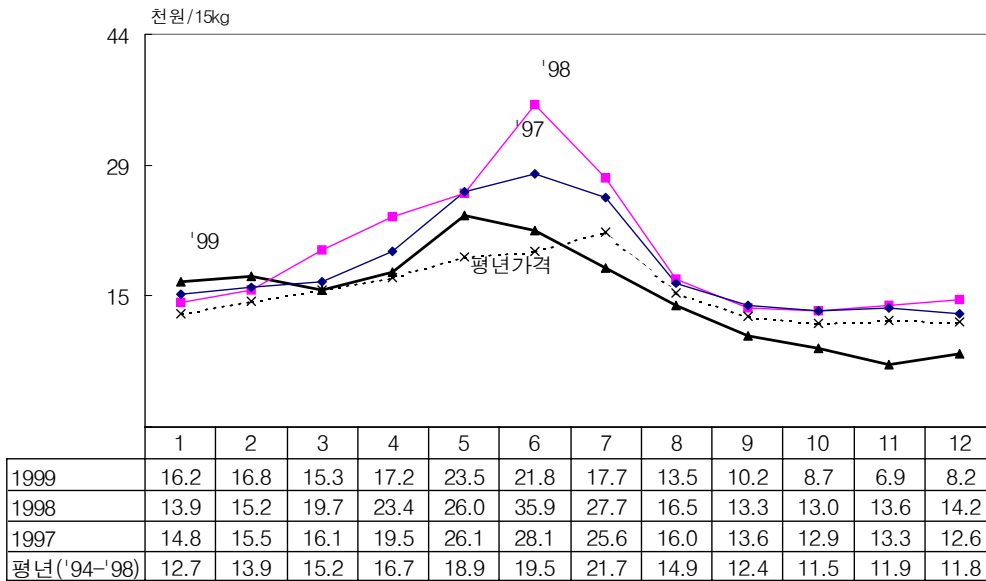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5. 고구마

- 작년 고구마 생산량은 33만 9천톤(생서 중량 기준)으로 작황이 나빴던 1997년보다 16% 증가함. 이에 따라 작년 8월부터 금년 1/4분기까지 가격은 안정됨.
- 금년 고구마 도매가격은 5월 이후 계속 하락하여 11월에는 15kg당

6,900원까지 폭락하였음. 12월에는 다소 상승한 8,200원 수준임. 4/4분기 고구마 도매가격은 7,933원으로 3/4분기 1만 3,800원보다 42.5%, 전년도 4/4분기 1만 3,600원보다 41.7% 낮은 수준에 있음.

고구마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6. 사료곡물

- 1997년 IMF의 영향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던 사료용 곡물 수입이 금년에는 증가함. 금년 1~11월의 사료용 옥수수과 밀 수입량은 727만 8천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4.1% 증가함.
- 세계 경기침체와 사료 곡물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하여 국제 곡물가격은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음. 사료용 옥수수의 1~11월 수입가격은 108달러, 사료용 밀의 경우는 작년보다 20달러 낮은 97달러임.

사료용 곡물 수입 실적

단 위			1995	1996	1997	1998	1998.1~11	1999.1~11
옥수수	수입량	천톤	7921	5,476	6,516	5,336	4,823	5,480
	단가	US\$/톤	140	179	148	125	127	108
	수입액	백만US\$	1,104	980	964	667	612	593
밀	수입량	천톤	131	905	1,096	2,347	2,170	1,788
	단가	US\$/톤	137	198	141	115	117	97
	수입액	백만US\$	18	179	154	270	253	174
계	수입량	천톤	8,052	6,381	7,612	7,683	6,993	7,278
	단가	US\$/톤	139	182	147	122	124	105
	수입액	백만US\$	1,122	1,159	1,118	938	865	76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 채소류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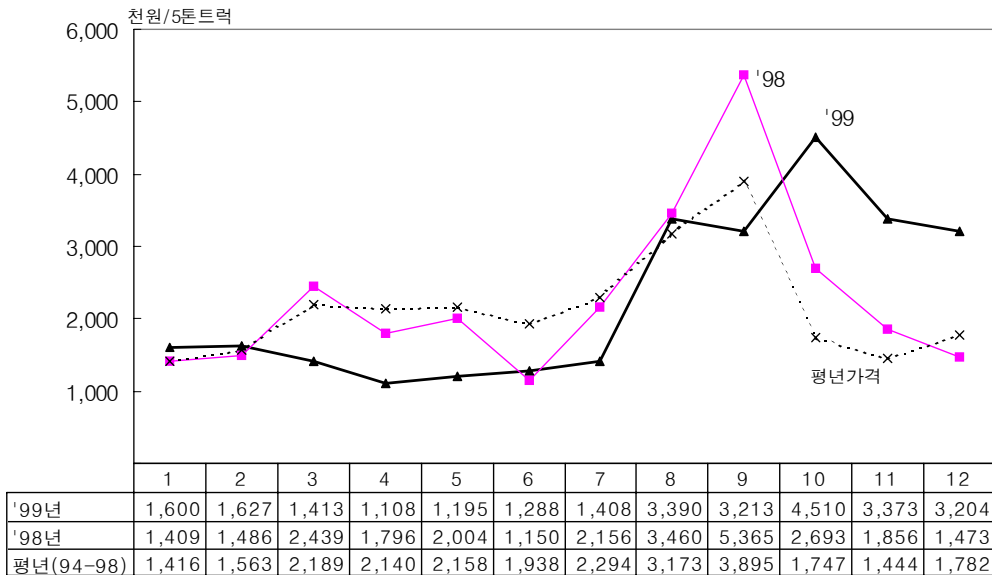
2.1. 배 추

- 배추 가격이 10월에 급등한 것은 경기,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10월 출하면적이 작년보다 10%나 감소한데다, 비 피해로 단수도 줄어 공급량이 17%나 감소하였기 때문임. 11월에는 10월보다 가격이 24% 정도 하락하였으나 평년 11월보다는 2.4배 높은 수준이었음. 12월 이후 출하될 가을배추의 재배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가격은 300만원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 4/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5톤 트럭당 369만원으로 3/4분기보다는 38.4% 높고, 평년 4/4분기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음.
- 가을배추의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3.4% 줄어든 12,292ha이었으며, 12월 이후 출하될 물량의 단수도 정식 및 생육 초기에 비가 계속 내려 작년보다 4% 정도 줄어든 9,690kg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음.

주)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연중 책임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자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e-mail: yjkim@kreisun.krei.re.kr으로 연락

- 월동배추의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4% 정도 줄 것으로 나타남. 작황은 정식기에 비가 계속 내렸고, 일조량도 부족하여 초기 생육이 나빠 작년보다 9% 이상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내년 1~2월 출하예정 면적이 작년보다 18% 정도 적고, 작황도 나빠 내년 1~2월 가격은 평년보다는 높을 전망이므로, 3~4월 출하예정물량을 앞당겨 출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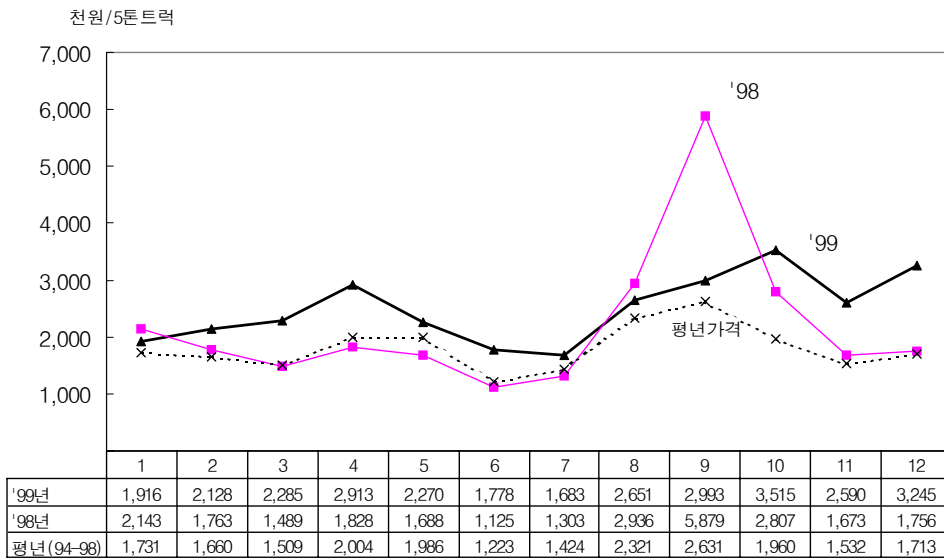
주: '99년 12월 가격은 12월 1~20일 평균임. 평년가격은 '94~'98년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공사

2.2. 무

- 무 가격이 10월에 높았던 것은 경기, 강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10월 출하면적이 작년보다 11%나 감소한데다, 단수도 작년보다 9% 정도 줄어 공급량이 19%나 감소하였기 때문임. 11월에는 10월보다 도매가격이 26% 정도 하락하였으나 평년 11월보다는 69% 높은 수준이었음. 12월 이후에 출하될 가을배추의 재배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가격은 250~300만원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 4/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5톤 트럭당 312만원으로 3/4분기보다는 27.8% 높고, 평년 4/4분기보다는 46.5% 높은 수준이었음.
- 가을무의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1.5% 줄어든 11,875ha이었으며, 12월 이후 출하될 물량의 단수는 작년보다 6% 정도 줄어든 5,560kg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나 12월 이후 출하량이 작년보다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월동 저장무의 가격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봄무의 재배의향면적은 금년보다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노지재배는 2% 늘고, 시설재배는 14%나 늘어날 것으로 나타남.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99년 12월 가격은 12월 1~20일 평균임. 평년가격은 '94~'98년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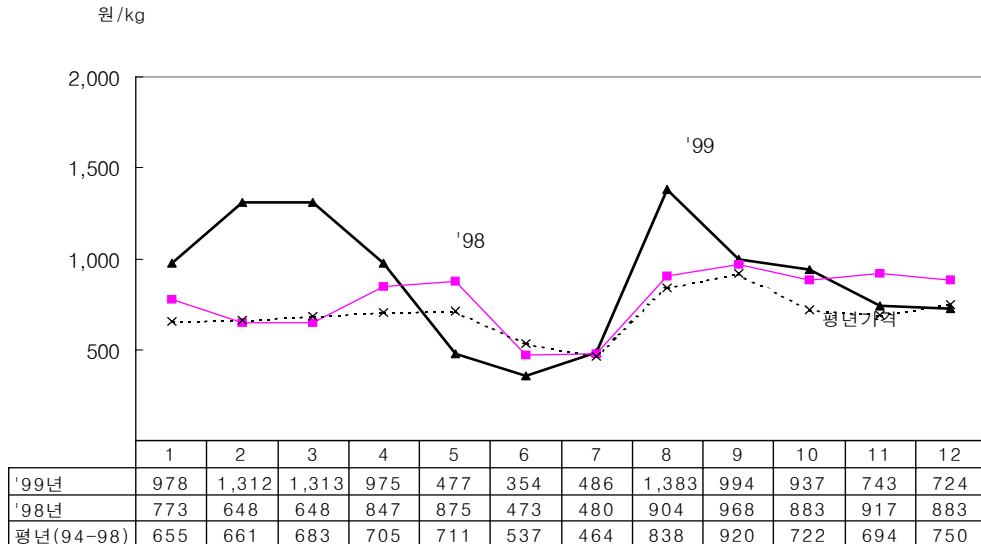
2.3. 대 파

- 대파의 4/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801원(상품 기준)으로 3/4분기보다

는 16% 낮은 수준이지만, 평년 4/4분기보다도 11% 높은 수준임.

- 12월 출하예정면적은 작년 12월보다 20% 많고, 내년 1~3월 출하될 전남, 경남지역의 면적은 금년 1~3월보다 13%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12월 이후 출하될 대파의 단수는 작년동기보다 1% 증가한 2,678kg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음(농업관측센터 11월 18일 조사치).
- 11월에는 날씨가 좋아 경기 및 중부지역의 출하량이 많아 가격은 하락하였으며,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출하예상량이 작년동기보다 18% 많아 평년수준인 600원대는 유지할 전망이다.
- 내년 1~3월까지 정식할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2% 증가한 1,677ha로 조사되었고, 1월에 정식할 경기지역의 하우스면적은 금년보다 25% 감소하는 반면, 2월에 정식하는 충청지역은 6%, 3월에 정식하는 남부지역은 1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농업관측센터 11월 18일 조사치).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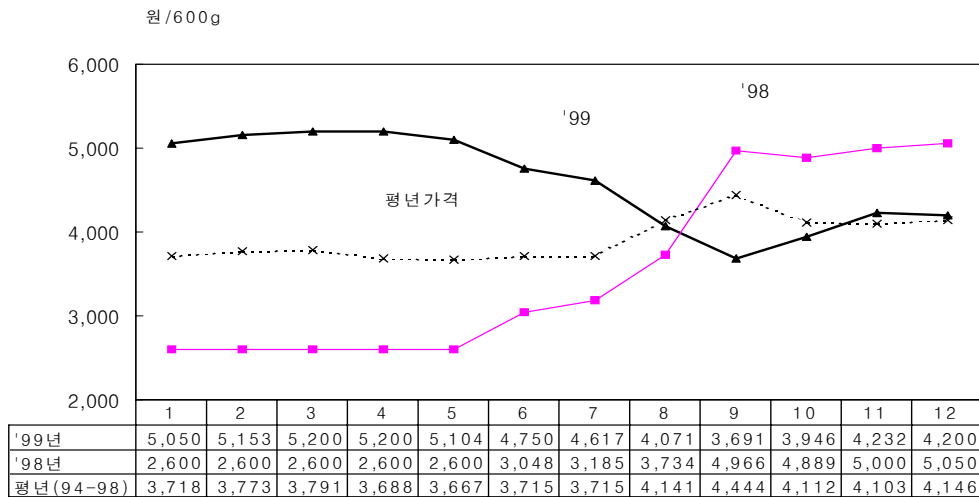


주: '99년 12월 가격은 12월 1~20일 평균임. 평년가격은 '94~'98년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4. 고 추

- 고추의 4/4분기 도매가격은 600g당 4,126원(화건 상품 기준)으로 3/4 분기와 같은 수준이고, 평년 4/4분기와도 같은 수준이지만, 작년보다는 17% 낮은 수준임.
- 금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75,574ha, 10a당 단수는 285kg, 생산량은 21만 5,400톤으로 집계됨. 여기에 민간수입예상량 1~2천톤을 더하면 총 공급량은 21만 7천톤으로 추정됨. 이는 작년 공급량보다 22% 많지만 평년 공급량보다는 7%정도 많은 수준임.

고추 도매가격 동향 (화건, 상품 기준)



주: '99년 12월 가격은 12월 1~20일 평균임. 평년가격은 '94~'98년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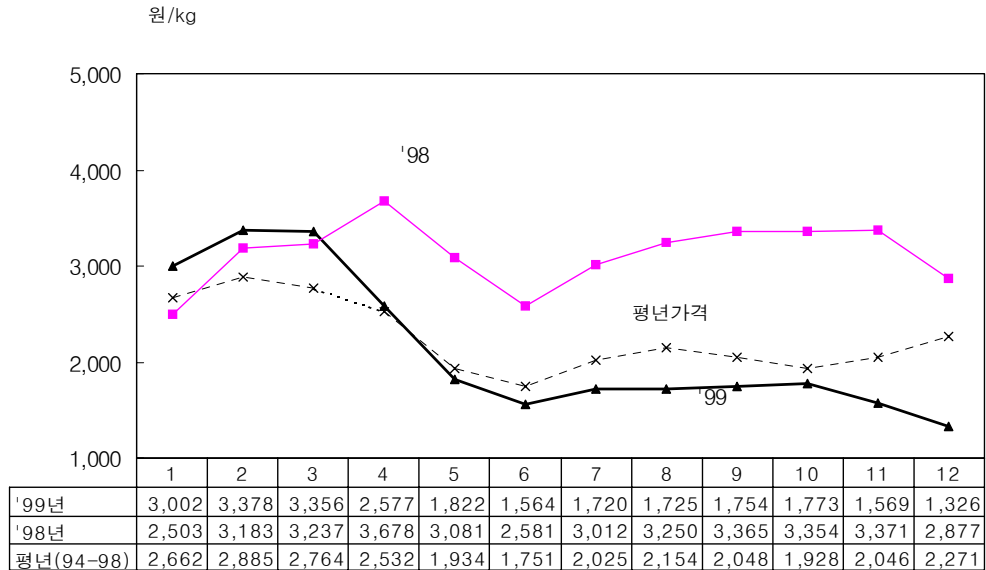
- 중국의 금년 고추 재배면적은 증가했지만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은 작년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됨. 민간수입 고추의 수입원가는 600g당 4,900~5,100원으로 국내산 태양초 상품가격보다 약간 높지만, 중국산 태양초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국내산보다 가격이 높더라도 민간수입량은 1~2천톤은 될 것으로 전망함.
- 8~11월에 금년산 고추의 출하물량은 작년보다 20% 많은 7만 6,800톤으로 추정되었으며, 12월 이후의 고추 공급량은 작년 동기보다 23%

많은 14만톤으로 추정되어 도매가격은 작년동기 평균 도매가격(5,000~5,200원/600g, 화건 상품)보다 20% 가량 낮은 4,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2.5. 마 늘

- 마늘 4/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1,556원(난지형 상품 기준)으로 3/4분기보다는 10% 낮은 수준이고, 평년 4/4분기보다는 25% 낮은 수준임.
- 금년산 마늘 생산량은 작년보다 23% 증가한 48만 4천톤임. 여기에 의무수입량 2,200천톤(건조 마늘 500톤 포함), 이월량 2천톤, 민간수입 예상량 1만 3~4천톤을 더한 공급량은 작년보다 16% 많은 50만 1~2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산 신선·냉동 피마늘의 수입원가는 kg당 2,300원, 깎마늘 2,600원 수준으로 국내산 가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12월 이후 내년 4월까지 민간 수입량은 1~2천톤에 그칠 전망.
- 금년산 마늘중 5~11월중에 출하된 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많지만, 12월 이후에 출하될 물량도 작년 동기보다 14% 많아 내년 수확기까지 가격은 작년동기 가격(2,900~3,400원)보다 30% 가량 낮은 2,000~2,4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중국산 냉동마늘이 잠정긴급관세 부과 직전인 10~11월에 약 5천톤이 수입되어 이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가격은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내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4%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금년산 마늘 가격이 낮고, 파종기의 일기불순으로 일부 마늘 재배농가가 양파나 보리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였기 때문임.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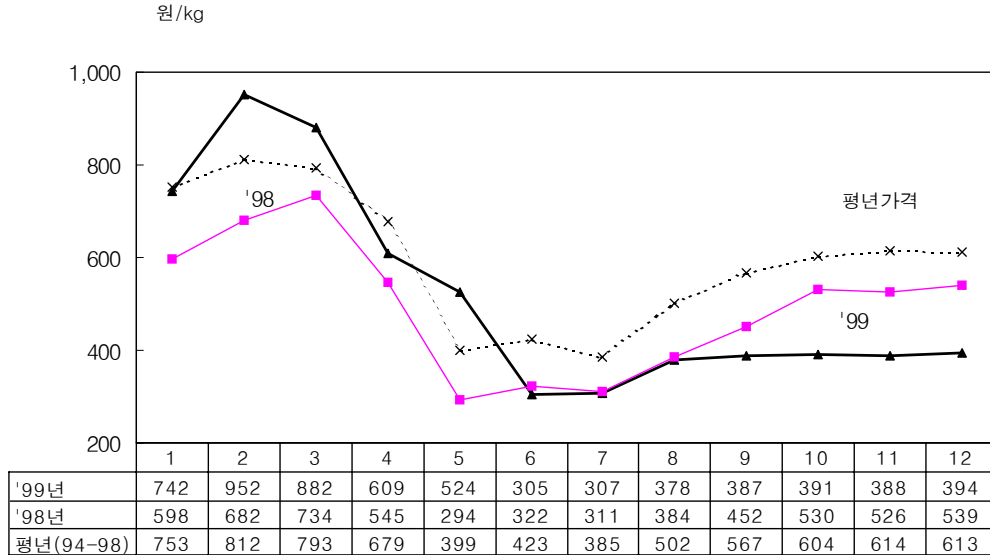


주: '99년 12월 가격은 12월 1~20일 평균임. 평년가격은 '94~'98년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6. 양 파

- 양파 4/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391원(상품 기준)으로 3/4분기보다는 10% 높은 수준이고, 평년 4/4분기보다는 36% 낮은 수준임.
- 금년산 양파 생산량은 93만 4천톤으로, 이는 작년보다 7퍼센트 증가한 것이고, 평년보다는 28% 증가한 것임.
- 금년산 양파는 풍작이었으나 4~11월에 출하된 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어, 12월 이후에 출하될 물량은 작년보다 18% 많고, 저장중 부패가 적어 실제 공급량 증가율을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12월 이후 가격은 작년 동기 가격 600~800원/kg(상품 기준)보다 40% 정도 낮은 400~500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99년 12월 가격은 12월 1~20일 평균임. 평년가격은 '94~'98년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9월에는 작년대비 15% 증가, 10월에는 5%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1월 조사에서는 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역별로 보면 호남지역은 7% 증가한 반면, 영남지역은 6% 감소하고, 제주지역은 3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맥주맥, 유채 등으로 작목전환이 이루어지거나 내년 봄에 배추를 재배할 것으로 조사됨. 품종별로 보면 중만생종의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하고 조생종은 19%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3. 과일류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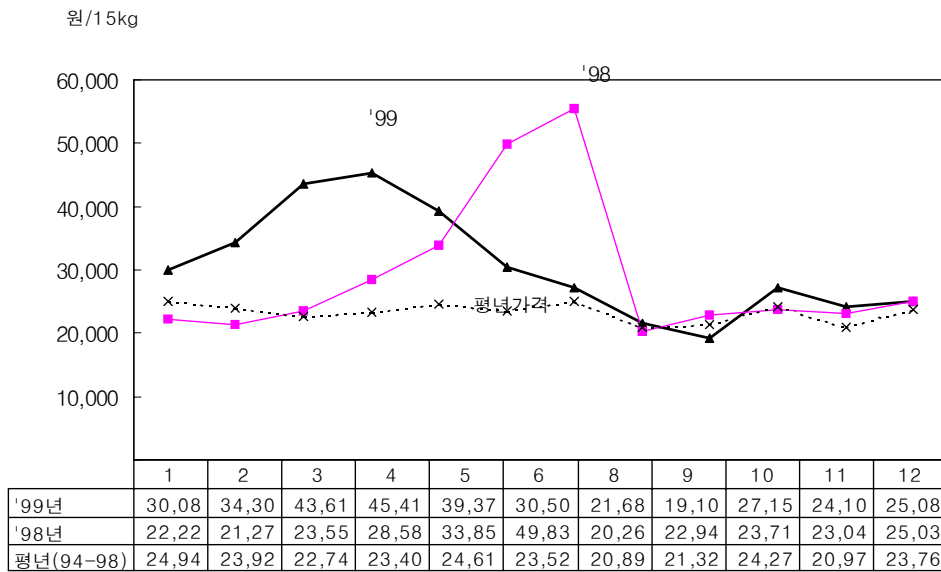
3.1. 사 과

- 10월부터 중생종의 출하가 끝나고, 만생종인 후지의 출하가 본격화되

주)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준기 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자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e-mail: jkpark@kreisun.krei.re.kr으로 연락

었으며, 10월 후지 도매가격은 상품 15kg당 3만 3천원까지 상승하였으나 단감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10월말에는 2만 2,500원으로 하락함. 11월 평균도매가격은 2만 4,100원으로 평년보다 15% 높고, 작년보다는 5% 높은 수준이었으며, 12월에는 작년과 비슷한 2만 5천원이었음.

사과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10월~익년 7월은 후지, 8~9월은 쓰가루 기준임. '99년 12월 가격은 12월 1~20일 평균임. 평년가격은 '94~'98년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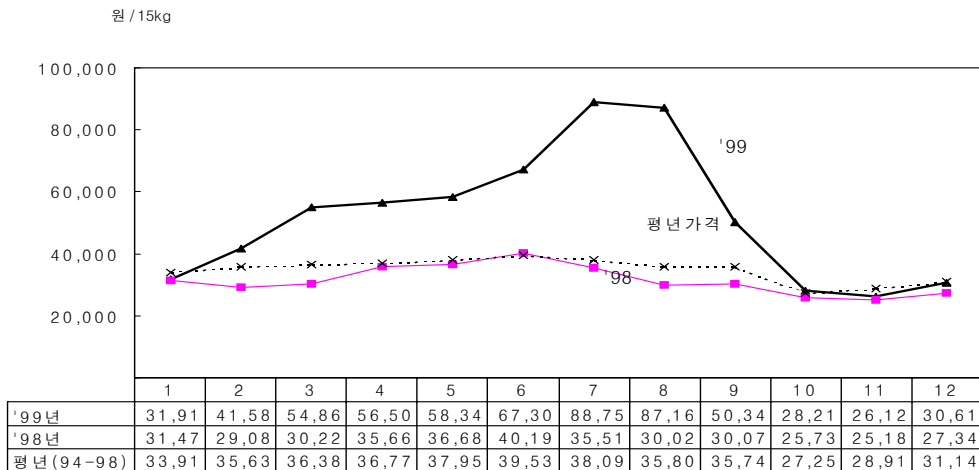
- 4/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15kg당 2만 5,450원으로 3/4분기보다는 12.1% 높고, 평년 4/4분기보다는 10.7% 높은 수준이었음.
- 금년 사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0% 줄어든 3만 1,079ha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성목 면적은 8% 줄어들고, 유목면적은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금년산 사과의 성목 단수는 작년보다 2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13% 정도 늘어난 51만 9천톤으로 추정됨.
- 내년 사과 재배면적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남. 품종별로는 후지와 쓰가루는 줄어드는 반면 중생종인 홍로와

양광, 산사, 감홍 등 신품종의 면적은 늘어날 전망이다.

3.2. 배

- 10월 도매가격은 추석 이후 일시적인 출하량의 급격한 감소 이후 점차 출하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으며, 평균 도매가격은 15kg당 2만 8,600원으로 작년보다 11% 낮은 수준이었음. 11월 도매가격은 2만 6,120원으로 작년보다 4% 높은 수준이었으며, 12월은 3만 618원으로 작년보다 12.0% 높았음.
- 4/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신고 상품 15kg당 2만 8,320원으로 3/4분기보다는 62.5% 낮고, 평년 4/4분기보다는 2.7% 낮은 수준이었음.
- 금년 배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늘어난 2만 5,677ha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성목 면적은 작년보다 14% 늘어난 반면, 유목면적은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금년산 배의 성목 단수는 작년보다 1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평년보다는 12% 정도 낮은 수준이어서 생산량은 작년보다 2% 정도 늘어난 25만 3천톤으로 추정됨.

배 도매가격 동향 (신고, 상품 기준)



주: '99년 12월 가격은 12월 1~20일 평균임. 평년가격은 '94~'98년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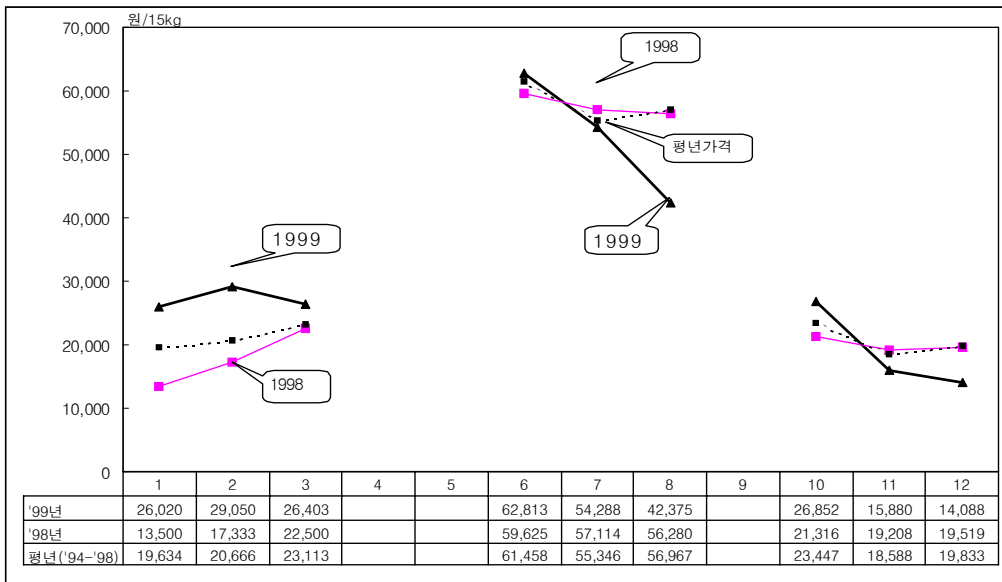
- 내년 배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1~2%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품종별로는 장

십량 등 만생종은 감소하고, 신고, 황금배, 추황 등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남.

3.3. 감 곶

- 10월부터 노지감곶 출하가 시작되면서 도매가격은 상품 15kg당 2만 6,852원으로 작년보다 25.9% 높고, 평년보다는 14.5% 높은 수준이었음. 11월에는 감곶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출하량이 늘어나 가격은 1만 5,880원으로 10월보다 40.9% 낮은 수준이었음. 12월에는 선택과 당도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출하되고 있으나 출하량이 많아 1만 4,088원으로 작년보다 27.8% 낮은 수준으로 약세를 유지하였음.
- 4/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15kg당 1만 8,940원으로 작년 4/4분기보다는 5.4% 낮고, 평년 4/4분기보다는 8.2% 낮은 수준이었음.
- 금년 감곶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2% 늘어난 2만 4,959ha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성목 면적은 작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산 감곶의 생산량은 작년보다 15% 정도 늘어난 59만톤으로 추정됨.

감곶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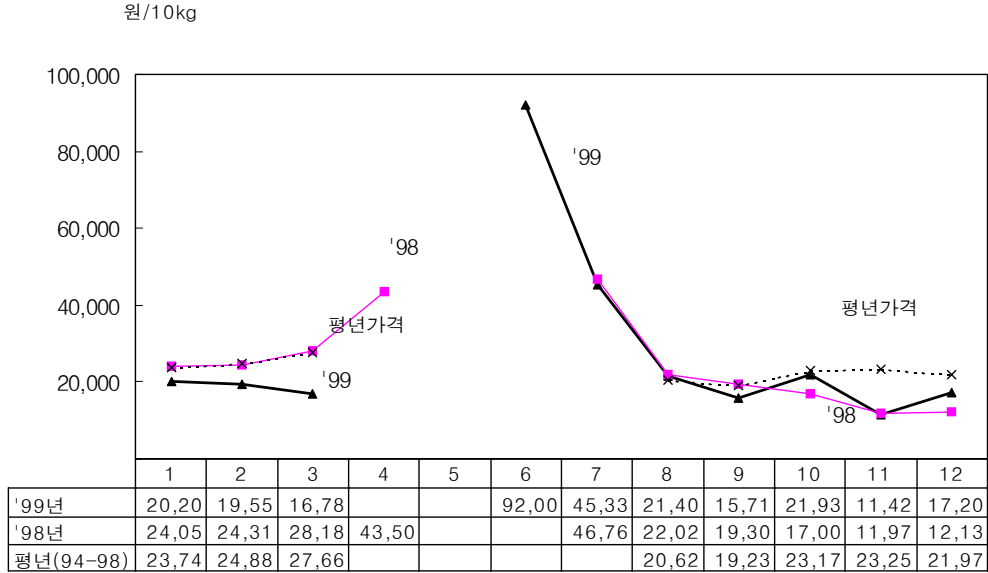
주: 1~3월, 10~12월은 노지감곶, 6~8월은 하우스감곶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3.4. 포 도

- 캠벨얼리, 거봉 등 주요 품종의 출하시기가 끝남에 따라 10월중 출하량은 급격히 감소하였음. 캠벨얼리 10월 상품 도매가격은 10kg당 2만 1,930원으로 작년보다 29% 높고, 평년보다 5% 낮은 수준이었음. 11월에는 포도의 상품성 저하로 출하량과 도매가격 모두 하락하여 평균 도매가격은 10월보다 40% 하락한 1만 1,091원이었으며, 12월은 1만 7,206원으로 작년보다 41.8% 높았음.
- 4/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캠벨얼리 상품 10kg당 1만 6,852으로 3/4분기보다는 38.7% 낮고, 평년 4/4분기보다는 26.1% 낮은 수준이었음.
- 금년 포도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늘어난 3만 537ha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성목 면적은 작년보다 5% 늘어난 반면, 유목면적은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금년산 포도의 성목 단수는 작년보다 12%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생산량은 46만 3천톤으로 추정됨.
- 그러나 만생종인 세레단의 작황 부진으로 저장량이 작년보다 70% 이상 감소하여 내년에는 칠레산 포도의 수입이 앞당겨지고, 수입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내년 포도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품종별로는 캠벨얼리, 거봉 그리고 신품종(마스캇베리에어 등)은 늘지만, 만생종인 세레단은 계속된 작황 부진으로 3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포도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1~4월 가격은 세레단, 6~12월 가격은 캠벨얼리 기준임. '99년 12월 가격은 12월 1~20일 평균임. 평년가격은 '94~'98년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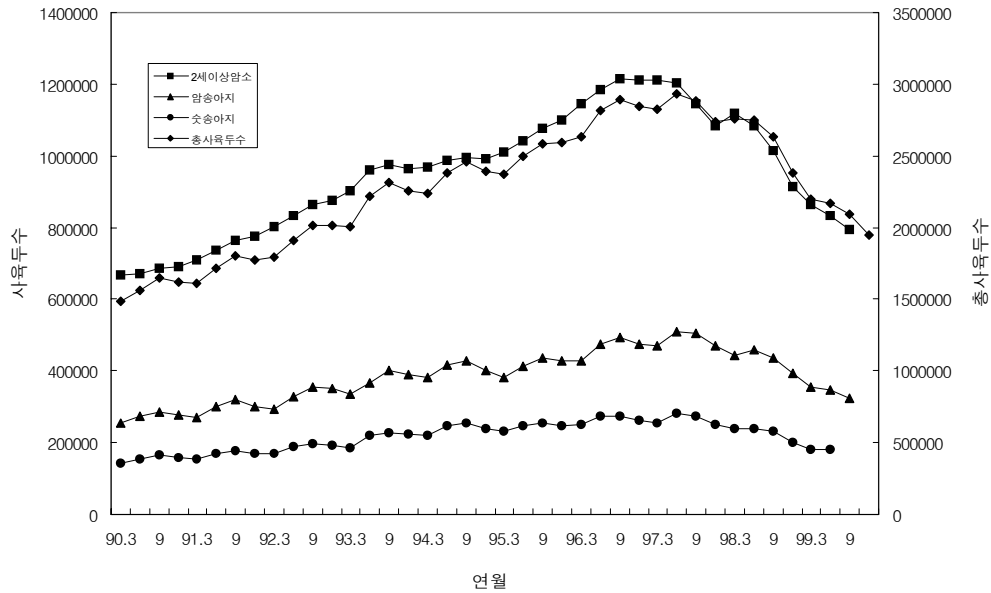
4. 축산5)

4.1. 한육우

- 한육우 총 사육두수는 1998년 12월 2,383천두에서 1999년 3월 2,198천두, 6월 2,167천두, 9월 2,094천두, 12월 1,947천두(추정)로, 3개월전 보다 147천두($\Delta 7.0\%$), 전년동기 보다 436천두($\Delta 18.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한육우 사육두수가 감소한 이유는 쇠고기 시장개방이 임박하여 도축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암소가 크게 감소하여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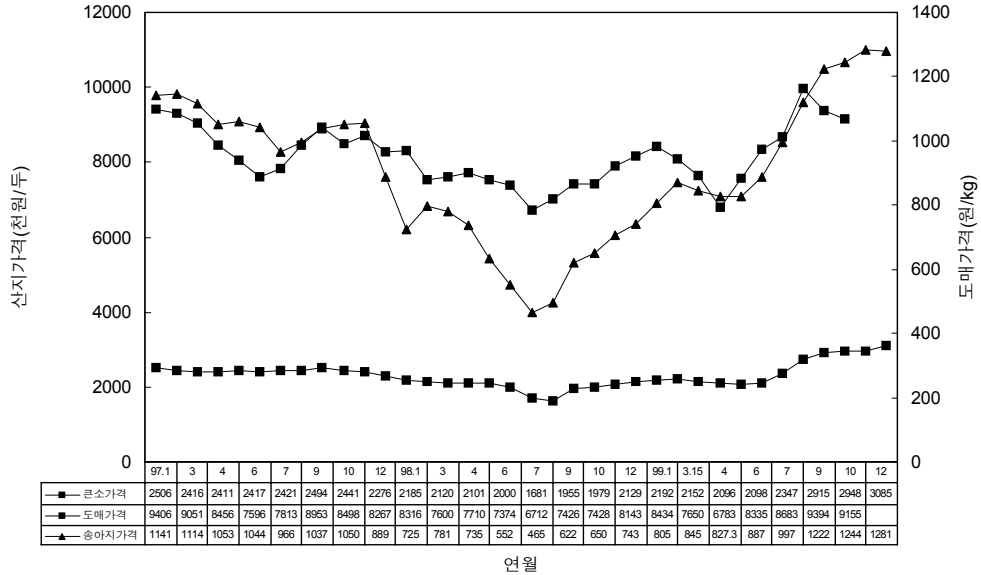
주) 이 자료는 농산업경제연구부 허덕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자료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e-mail: huhduk@kreisun.krei.re.kr으로 연락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 가임 암소두수는 1998년 3월 1,268천두, 12월 1,061천두, 1999년 3월 1,000천두, 6월 975천두, 9월 925천두, 12월 860천두(추정)로, 3개월 전보다 65천두($\Delta 7.0\%$), 전년동기 보다 201천두($\Delta 18.9\%$) 감소
- 암소도축의 증가로 가임암소 부족현상이 발생
 - 암소도축비율: (1996) 39.6% \rightarrow (1997) 52.8% \rightarrow (1998) 49.8% \rightarrow (1999.1~9) 56.6%
 - 가임암소두수: (1998.9) 1,166천두 \rightarrow (1998.12) 1,061천두 \rightarrow (1999.9) 929천두(1년전 대비 20% 감소)
- 전체 쇠고기 소비량은 증가하였지만, 도축두수 감소로 인해 국내산 쇠고기 소비는 부진
 - 1999.1~9월까지 전체 소 도축두수(한육우, 젃소)는 851천두로 작년 같은 기간동안 990천두보다 14.0% 감소
 - 국내산 쇠고기 소비: (1998. 1~9) 197.5천톤 \rightarrow (1999. 1~9) 187.8천톤 (전년동기대비 4.9% 감소)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 수입 쇠고기 소비: (1998.1~9) 56.9천톤 → (1999.1~9) 107.8천톤(전년동기대비 89.5% 증가)
- 쇠고기 총 소비 : (1998.1~9) 254.4천톤 → (1999.1~9) 295.6천톤(전년동기대비 16.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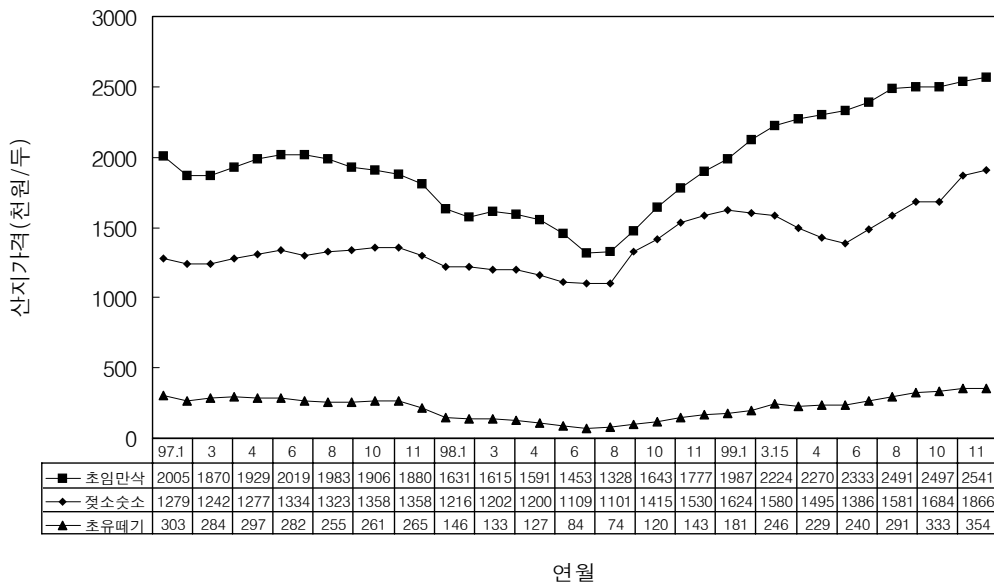
○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

- 산지에서 거래되는 500kg 큰 수소 가격은 1997년 12월 2,276천원에서 1998년 9월 1,955천원으로 급락하다가,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동년 12월에는 2,129천원, 1999년 2월에는 2,207천원으로 상승함. 동년 3월에는 2,152천원, 4월에는 2,079천원, 5월에는 2,068천원으로 다소의 약보합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6월에는 2,098천원, 7월에는 2,347천원, 8월에는 2,740천원, 9월에는 2,915천원, 10월에는 2,948천원, 11월에는 2,966천원에서 형성되고 12월 16일 현재는 300만원대를 넘어선 3,085천원을 기록하고 있음.

4.2. 젓 소

- 젓소 총 사육두수는 1998년 3월 568천두, 12월 539천두에서 1999년 3월 533천두, 6월 535천두, 9월 535천두, 12월 535천두로, 3개월전과 같은 수준이나, 전년동기 보다는 4천두(△0.7%) 감소됨.
- 사육두수가 유지된 요인은 지난해 저능력우 도태 등으로 2세 이상 마리수가 감소되었지만, 올 들어 분유재고 축소, 원유가격, 젓소가격, 사료가격 등의 안정 경향과 우유 소비자 가격의 상승에 따라 경영여건이 호전되었기 때문임.
- 우유 소비자가격 : (1998.12) 1,358원/리터 → (1999.12) 1,363원(전년 동기대비 0.4% 상승)

젓소 산지가격 변동



- 젓소 산지가격변동
 - 산지에서 거래되는 초유떼기 암송아지 두당 가격은 한육우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1997년 12월 212천원에서 1998년 3월 133천원, 동년 7월 64천원까지 급락하다가 이후 가격이 회복되기 시작하여 동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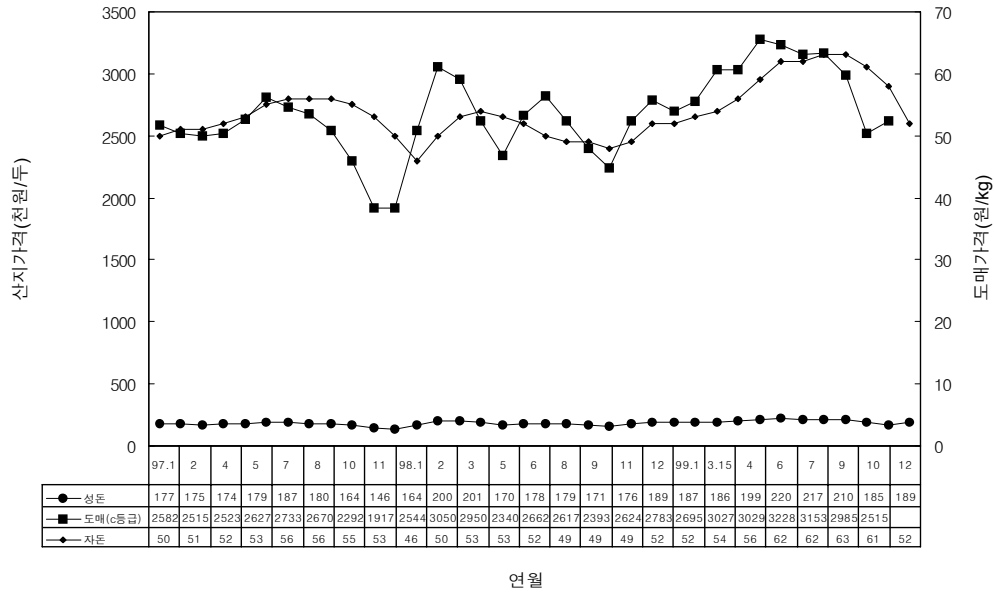
월에는 168천원, 1999년 3월 217천원, 6월 239천원, 7월 261천원, 8월 291천원, 9월 323천원, 10월 333천원, 11월 354천원으로 계속 상승추세에 있으며, 12월 10일 현재 354천원을 유지하고 있음.

- 초임만삭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당 산지가격이 1997년 12월 1,805천원에서 1998년 3월 1,615천원, 동년 7월 1,319천원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회복되기 시작하여 동년 12월 1,894천원, 1999년 3월 2,234천원, 동년 6월 2,333천원, 7월 2,388천원, 8월 2,491천원, 9월 2,496천원, 10월 2,497천원, 11월 2,541천원으로 상승함. 12월 10일 현재 2,567천원으로 상승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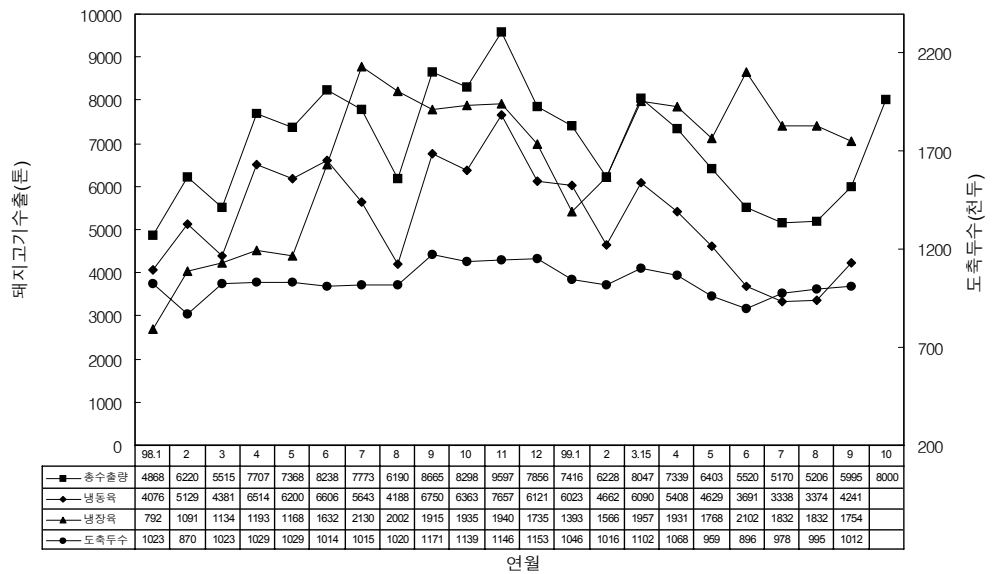
4.3. 돼 지

- 돼지 총사육두수는 1998년 3월 7,441천두, 12월 7,544천두에서 1999년 3월 7,376천두, 6월 7,344천두, 9월 7,813천두, 12월 7,930천두(추정)로, 3개월전 보다 117천두(1.5%), 전년동기 보다 386천두(5.1%)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한 요인은
 - 돼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 6월 이후 20만원 전후에서 형성되어 농가 사육 심리가 고조되어 있기 때문임.
 - 산지가격: (1998.3/4) 179천원/100kg → (4/4) 168 → (1999 2/4) 199 → (3/4) 218 → (4/4 잠정) 181 (전분기대비 17.0% 하락, 전년동기 대비 7.7% 상승)
 - 돼지고기값의 꾸준한 강세에 따라 도축 지연으로 사육두수 증가
 - 돼지고기 도매가격 : (1998 4/4) 2,453원/kg → (1999 2/4) 3,277 → (3/4) 2,268 → (4/4 잠정) 2,763 (전분기대비 21.8%, 전년동기대비 12.6% 상승)
 - 도축두수: (1998 3/4) 3,049천두 → (1999 2/4) 3,039 → (3/4) 2,870 (전분기대비 △5.6%, 전년대비 △5.9% 감소)

돼지 산지 및 도매가격 변동



돼지 도축두수 및 수출량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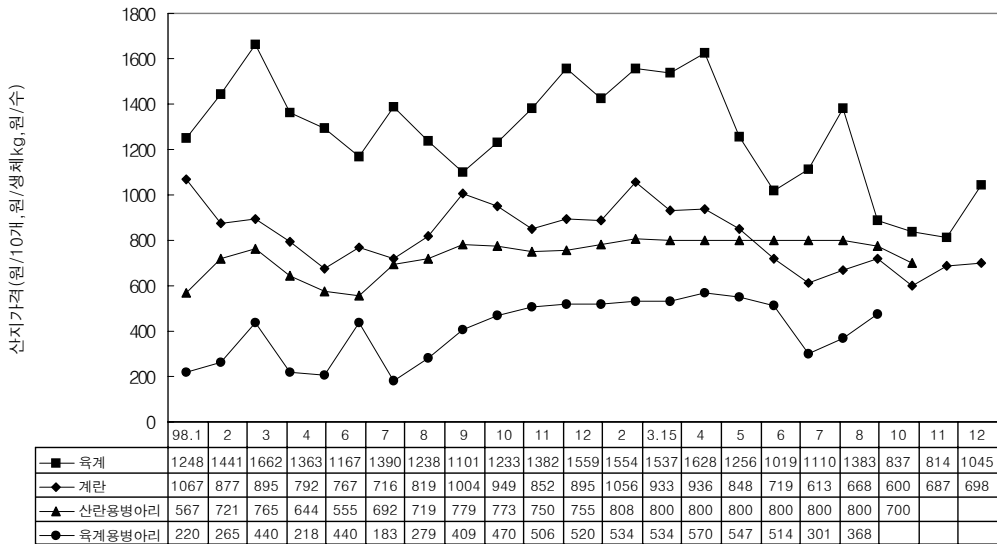
- 돼지고기 수출 감소, 수입 증가
 - 대일수출량: (1998.1~9) 70.9천톤→(1999.1~9) 65.68 (7.4% 감소)
 - 수입량: (1998.1~9) 43.9천톤 →(1999.1~9) 122.4천톤(전년도동기대비)

178.0% 증가)

4.4. 닭

- 닭 총 사육수수는 1998년 3월 85,912천수, 12월 85,847천수에서 1999년 3월 89,806천수, 6월 108,451천수, 9월 100,567천수, 12월 93,997천수(추정)로, 3개월전 보다 6,570천수(△6.5%) 감소하였지만, 전년동기 보다 8,150천수(9.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중 산란계는 1998년 3월 47,114천수, 12월 45,923천수에서 1999년 3월 47,503천수, 6월 49,650천수, 9월 51,162천수, 12월 49,800천수(추정)로, 3개월전 보다 1,362천수(△2.7%) 감소하였지만, 전년동기 보다 3,877천수(8.4%) 증가한 것으로 예상됨.
- 육계는 1998년 3월 32,781천수, 12월 34,671천수에서 1999년 3월 36,736천수, 6월 51,508천수, 9월 42,449천수, 12월 37,695천수(추정)로, 3개월전 보다 4,754천수(△11.2%) 감소하였지만, 전년동기 보다 3,024천수(8.7%) 증가한 것으로 예상됨.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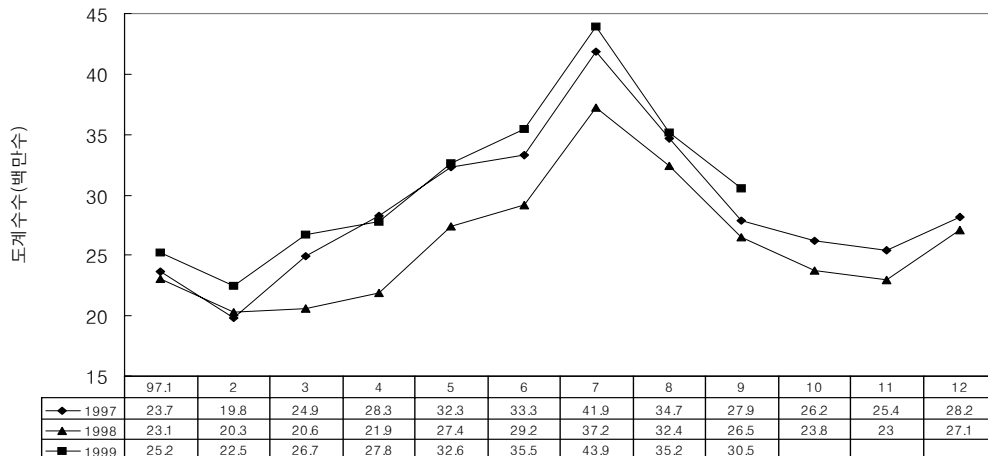


연월

○ 양계산물 산지가격 변동

- 계란 산지가격은 이전부터 계절변동이 심함. 대란 10개당 산지가격은 1997년 12월 911원하던 것이 1998년 3월 895원, 동년 9월 1,004원, 동년 12월 895원을 형성한 바 있음. 1999년 들어서는 2월 1,056원, 3월 936원, 4월 936원, 5월 848원, 6월 719원, 7월 613원, 8월 668원까지 줄곧 하락하다가, 추석 성수기인 9월 716원으로 잠시 상승하였으나, 예년의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10월 이후 다시 가격이 하락하여 10월 600원에서 형성됨. 동계에 들어 계란가격이 다소 상승하기 시작하여 11월 687원, 12월 16일 현재 698원에 거래되고 있음.

월별 도계수수 변동



월

- 육계도 마찬가지로 계절변동이 심한 품목임. 생체 kg당 산지가격이 1997년 12월 1,152원, 1998년 3월 1,662원, 동년 9월 1,101원, 동년 12월 1,559원에서 형성된 바 있음. 1999년 들어서는 2월 1,554원, 3월 1,535원, 4월 1,628원으로 상승을 계속하다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5월 1,256원, 6월 1,019원에서 형성됨. 7월과 8월에는 다소 회복세를 보여 각각 1,184원, 1,383원에 거래되었으나, 9월 887원, 10월 837원, 11월 814원까지 내려감. 12월 이후 동계에는 성수기를 맞아 12월 16일 현재 가격이 다소 회복되어 1,065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임.

○ 병아리 생산

- 산란계 실용계 병아리 생산: (1998.1~10) 28,812천수 → (1999.1~10) 32,544천수(전년 동기대비 13.0% 증가)
- 육계용 병아리 생산: (1998.1-9월) 2,470천수 → (1999.1-9) 2,944천수 (전년 동기대비 19.2% 증가)

Ⅵ. 농정 이슈

- 1999년 4/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
- 1999년 농업인 의식구조조사 및 농정현안 조사 분석
결과
- 계란 및 육계 가격의 폭락 원인과 대책
- 채소류 가격 파동의 원인과 전망
- 국제 농산물 협상 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입장
- WTO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이후의 전망과 과제

1999년 4/4분기 농업 관련 주요 보도 동향⁶⁾

1. 개황

- 10월 하순 추곡수매가 시작된 이후 시중가격이 수매가보다 2~3만원이나 높게 형성되자 농업인들이 수매를 기피, 특히 이천과 여주지역에서는 연리 7%인 위약금을 감수하고 약정이행을 거부해 수매에 차질을 빚었으나 12월 들어 수매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이와 관련해 농업인들이 추곡수매가 인상과 함께 현행 수매시 수분함량 기준(15%)을 건조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해 17%가 적당하다고 주장
-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 차기협상'과 관련, 광역단체들은 自道の 농산물 피해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협상에 따른 파급 영향을 분석하는가 하면 의회와 농업관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농산물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이 각 지역에서 주요기사로 취급
- 올해 농산물 수출이 전남·북지역의 경우 수출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2.5배 신장세를 보이는 등 신선채소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다고 각 지역에서 일제히 보도됐으나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는 생산농가들이 판로가 없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주) 이 자료는 각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의 농업관련 이슈를 골라 요점을 정리한 것임. 이 자료의 기초가 되는 「지방일간지 농어촌 관련 주요기사」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며,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 동향리포터에서 볼 수 있음. 이 자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기획조정실 김동원 연구원(e-mail: dongweon@kreisun.krei.re.kr)에게 연락

- 내년산 마늘과 양파의 재배의향면적을 조사한 결과 전남 지역은 각각 13%, 21.5%가 적정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강원 지역에서는 양파의 경우 무려 43%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잉생산이 우려됐고, 10월초 면세유값 급등으로 시설채소 재배 농가들이 타격을 받았는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는 공급부족 현상까지 겹쳐 농업인들이 가온재배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
- 축산분야는 한우값 강세가 이어져 11월 하순 오산지역에서는 500kg 수소 한 마리에 312만원까지 거래되었으나 돼지값은 100kg기준 산지값이 11월 중순에 17만원선에 거래돼 9월에 비해 3만원정도 하락. 이와 함께 육계값 폭락과 사료용 볏짚 품귀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
- 농어촌사회복지 관련하여 농촌 일부지역의 실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이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폐비닐·농약병 등의 방치로 농촌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소식과, 충북지역 농촌 주부 567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32%가 자궁암 등 부인성 질환에 시달린다고 발표.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는 각도 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폐합 대상을 계획보다 큰 폭으로 축소시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2. 지역별 농업 관련 보도 내용

2.1. 경기도

- 경기도내 간이집하장 등 농촌지원시설 142곳중 27%인 39곳이 용도변경돼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상당수 시설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

어 예산 낭비를 지적

- 경기농협은 내년까지 용인 등 5곳에 ‘파머스마켓’을 설치, 생산자의 직판을 통해 유통경로를 축소한다고 발표했고, 경기도의 농특산물 육성 사업은 선별·집중 투자 없이 예산분배에 급급해 5년간 명품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부실사업이라고 지적
- 수원 농산물도매시장 등 경기지역 4곳의 도매시장 법인들이 경매수수료를 하역비 포함해 6.5%~7%의 고율 징수함으로써 농민과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경영적자 메우기에 급급하다고 비난
- 경기도는 중국 순덕市에 유리온실 등 1만여평의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중국화훼시장 공략에 나섰다, 평택지역에서는 10월초 풍수해로 배추 수확량이 예년비해 40%나 감소하면서 중간상 받떼기 계약이 급증
- 한우값 강세가 이어져 11월 하순 경기지역 평균 소값이 500kg 수소 마리당 311만 8,000원까지 올랐고, 사료용 벼짚이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가격이 작년보다 30%나 올라 축산농가가 벼짚확보에 비상
- 면세유 가격폭등과 공급부족으로 경기지역의 필요량 600만kl중 34.1%만 공급돼 화훼단지에서 난방비 부담가중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보도

2.2. 강원도

- 강원도의 논과 밭이 매년 4,000여ha씩 4년간 1만 5,000여ha가 타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나 농지보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 강원도 여성정책실의 조사결과 강원도의 농가 인구중 여성농업인이 전체의 51%를 차지한다고 발표

- 213억원을 들여 6만9천㎡ 부지에 조성된 강릉 농산물도매시장이 지난 11월 중순 개장됨으로써 하루에 농산물 240톤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 영농법인 471곳중 100여곳이 운영난에 허덕이면서 휴·폐업이 잇따랐고, 원주에서는 농업인들이 시설비 자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농산물 저온유통사업을 외면해 신청자가 전무한 상태
- 내년 강원지역의 양파 재배의향면적을 조사한 결과 458ha에 달해 작년보다 무려 4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 또한 일기불순으로 상추의 수확량이 감소해 가격이 급등, 10월초 4kg에 최고 2만 8,000원까지 거래
- 유통업체 ‘하이마트’는 원주에 105억원을 들여 대규모 축산물 처리장을 짓기로 했고, 춘천시는 1만여평의 부지에 ‘豚 토피아’를 조성해 고품질 돼지생산과 먹거리촌을 유치하겠다고 발표
- 강원도교육청은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학부모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2002년까지 당초 계획 181곳서 39곳만 추진키로 결정

2.3. 충청북도

- 충북지역의 농림사업 관련 예산이 매년 줄어 내년도는 1998년에 비해 53%나 감소해 구조개선사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된 가운데 충북의 농가 호당 평균 밭이 1,800여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1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
- 충북농업개발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친환경농업 유통지원이 미흡해 생산농가 절반 이상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 비료과다 사용으로 충북지역의 밭토양이 악화돼 인산이 과다하고 유기물은 부족하여 채소 등 수확감소와 품질저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

다고 보도. 또한, 이지역 농업인들은 추곡수매 수분함량(현행 15%)을 미질하락과 건조비 등의 부담을 들어 17%가 적정하다고 지적

- 충북지역의 농협 물류센터가 상추·무·배추 등 신선채소 취급을 타지역산에 비중을 뒤 지역농산물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충주 농산물물류센터는 농가 판로를 외면한 채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해 올해 이 지역 특산물 도매는 1%에도 못 미쳤다고 보도
- 충북지역의 농축산물 상표 개발이 부진해 특허등록 184건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보도했고, 제천지역에서는 농업인들이 다단계 유통으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농산물 계통 출하를 기피한다는 보도와 함께 농산물 직거래는 활발해 8개 농협서 200억원을 돌파했다고 보도
- 면세유값 폭등으로 시설재배 농가들이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온재배 포기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고추 주산지인 음성·의령·고추 생산이 예년보다 10% 늘어난 4,200여 톤으로 전망. 옥천지역에서는 포도·복숭아 등 과수재배면적이 1997년 보다 21%나 늘었으며, 충북도는 2004년까지 171억원을 들여 송이생산시설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
- 괴산군은 관광을 하며 농특산물 쇼핑을 겸할 수 있는 ‘그린투어’ 2개 코스를 개발해 농외소득과 연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 지역 농촌주부 567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32%가 자궁암 등 부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도

2.4. 충청남도

- 충남도의 농경지 850만평이 2년간 타용도로 전용됐다는 보도가 나간

가운데 충남도와 현대건설이 서산 AB지구에 대한 토지활용 용역발주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환경운동연합이 절대농지 해제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비난. 한편 태안군은 폐염전 등 간척지 156ha를 160억원을 들여 2001년까지 농지화한다는 계획을 발표

-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중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수확량 감소에 비해 지원금이 적고 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부족과 유통체계 미비로 제값을 받지 못해 아산에서는 대상지역 60ha에 신청농가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
- 충남지역 김장용 배추의 작황부진으로 시세가 급등하면서 작년보다 50% 높은 값에 발매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10월말 보도됐고, 이와 함께 11월 하순에는 배추와 무 등 김장 주재료의 가격은 오르는데 반해 생강과 마늘 등 부재료의 가격은 내려 채소 농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
- 충남도의 축산용 초지가 3년간 158ha나 타용도로 전용돼 축산물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됐고, 논산지역의 돼지고기 대일 수출액이 상반기 1,000만 달러를 기록, 작년보다 2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10월초 보도

2.5. 전라북도

- 전북에서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림 소득은 1.1%에 불과해 산림자원 활용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 또한, 전북 지역의 회원농협 110곳중 50곳이 조합원 1,500명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폐합 대상이 됨으로써 절반만이 생존할 것으로 전망
- 농산물 간이집하장 298곳이 연평균 이용률 95일에 그쳐 상당수가 창

고나 직판장으로 용도 변경돼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농촌특산단지도 운영부실로 170곳중 30곳이 지정취소됐다고 보도

- 전농전북연맹이 146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부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가 농업소득만으로 부채를 갚지 못해 연평균 950여만원의 빚을 얻어 빚을 갚고 있다고 발표
- 전북 정읍지역의 생강값이 1kg당 500원꼴로 생산액의 10%선에 그쳐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 11월초 보도
- 전북도의 가축통계가 양돈 사육두수의 경우 조사 기관마다 8만마리까지 차이가나 농가의 수급조절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전북도의 축산업 총 생산액이 1조원으로 쌀 생산액의 66%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쌀 생산에 투자된 금액의 10%도 안돼 경쟁력 상실 우려
- 전북도의 농어촌 먹는 물 관리가 3개월에 한번 수질검사에 그치고 소득도 부실해 시늬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고, 완주군은 농촌 노인역할 개발 시범마을 2곳을 선정해 일감부여 등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

2.6. 전라남도

- 전남 지역의 쌀 생산량은 추수기 태풍 등이 겹쳐 작년보다 6만 8,000섬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산물벼 수매도 올해 7만 7,00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5%에 불과해 산물벼 수매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정부수매를 제외한 일반수매 벼가 전체 생산량의 80%에 이르고 있으나 유통과 보관에 따른 기초 통계조차 없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도

- 광주·전남농협본부는 내년도에 공동판매 2,000억원과 직거래사업 1,300억원을 증액하는 등 농산물 유통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전남지역 벤처농업연구클럽이 29개 조직에 400여명 가입돼 있으나 활동은 전혀 없어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고 지적. 전남대에서는 교내에 특수쌀 개발 벤처기업이 설립됐다고 발표
- 전남도의 올 농산물 수출이 호조를 보여 10월말 현재 16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배 신장했으며, 전남지역에서 지난 3년간 3,735ha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
- 전남농협은 부가가치가 높고 품종 차별화가 가능한 농작물 ‘돌연변이 종’ 확보에 나섰고, 전남지역에 화훼농장 등 14곳에서 농업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용이 부실하고 소프트웨어 부재로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보도
- 전남도가 내년산 마늘과 양파의 재배의향면적을 조사한 결과 적정면적보다 마늘은 13%, 양파는 21.5%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과잉생산이 우려됐고, 나주배의 생산량 감소로 수출 계약물량 58% 확보에 그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
- 전남지역의 돼지사육두수가 최근 5만두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후 11월 초 돼지값이 100kg에 17만원까지 떨어졌고, ‘쇠고기 냉도체 판정제’의 부작용이 잇따라 전남지역의 도축이 25%나 감소

2.7. 경상북도

- 경북지역의 영농법인 800여곳중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37곳의 운영이 중단됐고 86곳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농산물 가공업체도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판매 부진 등으로 대다수가 파산직전이라고 보도

- 대구와 경북지역의 농산물 수출이 호조를 보여 10월말 현재 1,310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만 달러나 증가했고, 특히, 송이 수출은 작년보다 58%나 증가했다고 보도. 한편, 벼 약정수매 농가들은 도복피해와 등급하락으로 이행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
- 경북지역에서 잦은 비와 병충해로 고추의 수확이 줄어 10월말 도매가 기준 근당 4,500원에서 5,000원선에 거래돼 한달새 20%나 올랐다는 보도가 있었고, 상추와 시금치도 공급량이 부족해 값이 작년의 2배에 달했다고 11월초 보도. 이와 함께 보리재배면적도 작년보다 33% 증가한 4,639ha에 달한다는 통계도 발표
- 성주군에서 암소도축이 전체 도축물량의 60%선을 넘어서고 있고 2001년 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 사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한우 사육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
-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통폐합 기준을 70명에서 50명으로 조정. 한편 영덕군의 농촌 실업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결과 정원의 40%에도 못미쳐 파행운영 우려
- 청도보건소가 사망한 농촌주민 497명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을 조사한 결과 순환기 질환으로 숨진 사망자가 44%에 달한다고 발표

2.8. 경상남도

- 정부의 추곡수매가 시작되면서 진주지역의 양곡상들이 농촌을 돌며 ‘햅쌀 사재기’에 나서 수매가 보다 비싼 가격에 농민들을 유혹, 추곡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10월 하순

열린 경남농협 수출전진대회에서는 현재의 농업 직접지원은 과잉생산에 따른 값 폭락을 불러온다는 주장이 제기

-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이 막상 판로는 없어 합천지역에서는 생산량의 10%도 판매하지 못해 애를 태웠고, 밀양지역에서는 울 신선농산물 등의 수출이 잘돼 123억원의 매출을 기록. 한편, 진주지역에서는 농산물 리콜제가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고있으며, 이지역에서도 쌀값이 계속 올라 농민들이 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10월초 보도
- 부산세관은 올들어 10월까지 세관을 통과한 양과가 1만 2,000톤에 달해 작년보다 37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거창사과의 대일 수출물량은 올해만 120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합천지역 양축농가의 한우 사육기피가 확산, 1년새 사육두수가 10.8%나 줄었다는 발표가 있었고, 벗짚 물량부족으로 값이 작년보다 10~20%나 올라 축산농가들이 벗짚확보에 비상. 한편 거창지역에서는 하루 800두 도축 능력을 갖춘 돼지고기 가공공장이 준공됐으며, 이지역 돼지고기 수출이 늘어 올 100억원의 매출 전망
- 통영지역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 표준설계도가 농촌 현실에 맞지 않아 외면당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업용 지하수개발이 허가 절차의 복잡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

2.9. 제주도

- 농어업 비중이 전체산업에서 24.1%를 차지하는 제주도에서는 'WTO 차기협상'에 따른 농업부문 타격을 우려해 의회·농업관련기관 등 관계자 40여명으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피해에 대비. 한편, 중국

의 WTO 가입에 따른 제주 농업의 영향분석결과 마늘과 참깨 등 농작물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 반면 축산물은 품질우위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제주지역의 농가 경지규모가 2ha 이상 전업농가는 전년비에 12%가 증가한 반면 0.5ha~2ha 미만 중소형 농가는 감소세가 이어져 경지규모의 양극화가 뚜렷했고, 제주의 농가당 부채가 1,800만원으로 1990년도 비해 4배나 늘어난 반면, 소득은 같은 기간 2.3배 증가에 그쳐 농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제주농업기술원이 제주지역 화학비료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작년 4만 3,000톤으로 1997년보다 1만 2,000톤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남제주는 2005년까지 3,600여ha에 청정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고 발표. 한편 올해 고구마 재배면적 및 생산량에 대한 통계가 품질관리원에서는 증가로, 제주도에서는 감소로 제각각 발표돼 농가 혼돈
- 내년산 마늘과 양파의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 적정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년도 보리생산면적도 올보다 21% 늘어난 1,230여ha에 달한다고 보도
- 제주농협이 비상품 감귤 1,000톤을 수매해 수출키로 하자 출하연합회가 비상품 감귤의 유통금지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 한편,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귤원 폐원정책이 올 21ha 감축 실적을 보인 것에 비해 60ha가 신규 조성된 것으로 조사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진단
- 제주지역에서도 한우사육 감소와 계란값의 폭락 소식이 잇따랐고, 축산농가의 자금사정이 악화돼 제주축협의 대출금 연체액이 263억원에

달하며 6개월 이상 연체율도 3년째 계속 증가. 한편, 제주도가 ‘한라산 쇠고기’브랜드 개발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북제주군은 올해 2곳에 이어 내년에 21억원을 투입해 12곳의 한우 방목형 목장을 조성키로 했다고 발표

1999년 농업인 의식구조조사 및 농정현안 조사 분석 결과⁷⁾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원(1978년) 이래 지금까지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현지통신원」을 선정, 농촌현장의 여론 수집과 의식구조를 조사해 농정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지통신원은 총 2,070명이며 지난 1997년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농협, 축협, 임협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음.
- 1999년말에 실시한(1999.10.28~11.30) 농업인 의식구조조사에서는 그동안 실시한 농업인들의 일반적인 의식구조 외에 별도로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응도 조사하였음. 별도조사에는 WTO 농산물 차기 협상과 우리의 대응,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농정 변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응, 현재 실시중인 친환경농업직불제와 2001년부터 도입 예정인 쌀 농가 직접지불제에 대한 의견, IMF 관리체제하의 우리 농업·농촌 경제상황변화,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농촌 보건 진료소 통폐합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음.
- 우편 조사대상 통신원중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통신원은 1,005인으로써 이들이 보내온 조사표만 최종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분석은 SA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1. 농업·농촌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및 매체의존 경향

- 1999년 농사와 관련하여 농업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농산물 가격’(28.9%) 이었으며, 그 다음이 ‘농작물 병충해, 기상, 기후

주) 이 자료는 기획조정실 조태희 책임연구원과 김동원 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자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조태희 책임연구원(e-mail: chotaeh@kreisun.krei.re.kr)에게 연락

조건’(19.3%), ‘농자금·농가부채’(19.0%), ‘농산물 수입개방’(10.1%) 임. 매년 농산물 가격은 농가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해 정부 정책이나 기상 이변에 따라 농업인들의 관심사항이 바뀌고 있음.

- 1999년 농사를 지으며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기상, 기후 조건’(37.8%)이라 답했으며, 그 다음이 ‘영농자금부족·농가부채’(22.7%), ‘농산물 가격불안정’(16.6%), ‘농촌인력문제’(13.4%), ‘농작물 병충해’(5.5%), 순으로 조사됨. 1995년 이후 농사애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95년엔 ‘농촌인력’, 1996년엔 ‘농산물 가격 불안정’, 1997년 이후엔 ‘기상, 기후조건’이 농사를 지으며 느끼는 가장 큰 애로라고 답해 매년 농업과 관련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농업인들이 느끼는 애로가 다르게 나타남.

농사를 지으며 느끼는 애로 조사

단위: 명, (%)

구 분	1999	1998	1997
농산물 가격 불안정	167 (16.7)	210 (17.3)	512 (43.9)
영농자금·농가부채	228 (22.7)	285 (23.5)	237 (20.3)
농촌인력문제	135 (13.5)	107 (8.8)	220 (18.9)
농작물병충해	55 (5.5)	109 (9.0)	78 (6.7)
기상,기후조건	380 (37.8)	470 (38.7)	66 (5.7)
수입개방	20 (2.0)	12 (1.0)	40 (3.4)
농사정보 부족*	9 (0.9)	8 (0.7)	-
농지문제*	9 (0.9)	12 (0.9)	-
기타	-	1 (0.1)	13 (1.2)
계	1,003 (100.0)	1,214 (100.0)	1,166 (100.0)

* 1998년 농업인 의식구조조사 신설 항목

-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텔레비전’(62.0%)과 ‘일반신문’(20.6%)에 의해 입수한다는 응답자가 82.6%인 반면, 농사관련 정보는 ‘농업관련 신문

및 잡지’(66.2%)와 ‘텔레비전’(10.7%), ‘영농교육’(10.6%) 순으로 나타남. 앞으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정책 홍보와 정보 제공은 농업관련 신문 및 잡지를 비롯한 텔레비전, 영농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됨.

보도매체 의존 경향

단위: 명, (%)

구 분	세상 소식	농업 소식
일반신문	207 (20.6)	20 (2.0)
농업관련 신문 잡지	129 (12.8)	665 (66.2)
라디오	29 (2.9)	29 (2.9)
텔레비전	622 (62.0)	107 (10.7)
영농교육	6 (0.6)	106 (10.6)
홍보용책자	2 (0.2)	17 (1.7)
가족, 이웃주민, 반사회	6 (0.6)	51 (5.1)
기타	3 (0.3)	9 (0.9)
합 계	1,004 (100.0)	1,004 (100.0)

2. 농촌생활 수준의 평가

- 5년 전에 비해 농촌의 생활 수준이 어떻느냐는 질문에 31.5%의 응답자가 ‘5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매우 좋아짐, 약간 좋아짐 합산)’고 응답했고, ‘못해졌다(약간 못해짐, 매우 못해짐 합산)’는 응답자는 31.8%로 조사됨. 이같은 결과는 1998년 농업인 의식구조조사 때보다 농가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농가가 4.6% 가량 늘어난 것임.
- 1998년에 비해 농촌의 생활수준이 좋아졌느냐는 질문에 22.5%의 응답자가 ‘좋아졌다(매우 좋아짐, 약간 좋아짐 포함)’고 응답했고, 28.7%의 응답자가 ‘나빠졌다(약간 못해짐, 매우 못해짐 포함)’고 응답함. 이 같은 결과는 1998년 조사에 비해 좋아졌다는 응답자가 늘은 것으로 1997

년 말부터 IMF 관리체제에 들어섬으로 인해 유류값 및 농자재 값은 인상된 반면 상대적으로 농산물 값은 오르지 않아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은 것에 비해 1999년엔 농촌경제가 호전돼 농촌의 생활 수준이 좋아져 나타난 결과로 분석됨.

생활수준 평가

단위: 명, (%)

구 분	5년전 대비	전년 대비
매우 좋아짐	29 (2.9)	7 (0.7)
약간 좋아짐	286 (28.5)	219 (21.8)
마찬 가지임	369 (36.8)	489 (48.8)
약간 못해짐	227 (22.7)	235 (23.4)
매우 못해짐	91 (9.1)	53 (5.3)
합 계	1,002 (100.0)	1,003 (100.0)

5년전 비교 농촌생활수준평가에 대한 연도별 응답 변화

단위 : %

구 분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매우 좋아짐	2.9	3.9	6.4	7.8	7.4	8.0	7.6
약간 좋아짐	28.5	22.9	34.2	45.9	52.5	51.8	42.7
항상 (소 계)	31.4	26.8	40.6	53.7	59.9	59.8	50.3
마찬가지이다	36.8	26.7	28.1	30.8	29.6	28.9	33.3
약간 못해짐*	22.7	30.5	-	-	-	-	-
매우 못해짐	9.1	16.0	31.1	15.5	10.5	11.3	16.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998년 농업인 의식구조조사 신설 항목

- 앞으로 5년 후에 농촌의 생활 수준이 1999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이겠느냐는 질문에 23.1%의 응답자가 '1999년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38.9%의 응답자는 '현재보다 낙후될 것'이라고 답함.

- 2000년 농촌의 생활 수준이 1999년과 비교했을 때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한 농업인은 14.2%인 반면에 ‘1999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34.1%로 나타남. 이같은 결과는 WTO 차기협상 등 농업의 여건이 좋지 않아 2000년 농업을 그리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묻는 질문에 84.4%의 응답자가 ‘중요하다(매우 중요 포함)’고 답해 많은 농업인이 국가경제에 있어서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농사 만족도 및 농촌거주에 대한 의식

- 농업인들의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1.4%의 응답자가 ‘농사를 짓는 일에 만족한다(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포함)’고 답했고, 30.2%의 응답자가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 ‘불만족 한다(불만, 매우 불만 포함)’고 답함.
- 연도별 농사 종사 만족도를 살펴보면, 1996년 이전 조사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 약 40%의 응답자가 불만족을 표시했으나 1997년 이후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30%대로 줄어들어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사를 짓는 것과 다른 직업에 종사했을 때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4.2%의 응답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답했고, 44.1%의 응답자는 ‘본인하기에 달렸다’,

연도별 농업 종사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매우 만족한다	32(3.2)	4.0	3.4	1.7	1.7	1.1	1.8
대체로 만족한다	180(18.2)	25.1	18.0	10.8	8.6	13.7	8.1
만족 소계	212(21.4)	29.1	21.4	12.5	10.3	14.8	9.9
그저 그렇다	477(48.3)	43.4	43.1	48.4	48.3	44.2	33.8
불만이다	208(21.1)	20.7	24.7	26.0	27.3	41.0	56.2
매우 불만이다*	90(9.1)	6.8	10.9	13.1	14.2		
합 계	987(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995년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시 신설항목

42.2%의 응답자는 ‘농사를 짓는 것이 불리하다’고 각각 답해 농사를 짓는 것이 다른 직업에 비해 그다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그래도 본인 노력에 따라 농사를 짓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농업인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의 장래가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7.8%의 응답자만 ‘장래가 밝다(다소 밝다 포함)’고 답했고, 농업의 장래에 대해 59.9%의 응답자는 ‘어둡다(무척어둡다 포함)’고 답함.

농업의 장래 인식

단위: 명, %

구 분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장래가 밝다	25(2.5)	1.2	1.0	0.4	0.7	1.0	0.8
장래가 다소 밝다	53(5.3)	13.0	6.8	5.3	8.5	5.7	1.8
보통이다	324(32.3)	36.0	23.0	25.9	21.1	15.0	8.5
장래가 어둡다	519(51.8)	43.0	57.2	56.5	69.7	78.2	88.9
장래가 무척 어둡다*	81(8.1)	6.8	12.0	11.9	-	-	-
합 계	1,002(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996년도부터 농업인의식구조 조사시 신설항목

- 앞으로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느냐는 질문에 80.4%의 응답자가 ‘농촌에 계속살겠다’고 답했고, 7.0%의 응답자는 ‘농촌을 떠나겠다’고 답함. 그리고 10.3%의 응답자는 농촌을 떠날런지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농촌에 계속 살겠다는 응답자중 40.8%의 응답자가 ‘이제까지 농촌에 살아 모든 생활근거가 농촌에 있기 때문’에 농촌에 계속 살겠다고 답했고, 그 외에 ‘도시에서 살 능력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이란 응답자가 18.0%, ‘고향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촌에 살겠다’는 응답자가 13.7%, ‘농촌에서도 잘 살 수 있음으로’(6.1%) 순으로 조사됨.
- 전체 응답자중 7%가 이농하겠다고 답했는데 이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사짓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서’란 응답자가 31.8%로 가장 많고, 그 외에 ‘농사가 수익성이 없어 직업을 바꿔 이농하겠다’는 응답자가 25.2%, ‘농촌 노동력 부족 등 농사짓는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이농하겠다는 응답자가 15.8%,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농하겠다는 응답자가 9.3%에 달함.
- 이농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 중 앞으로 5년 이내에 이농하겠다는 응답자가 44.5%에 달해 많은 응답자가 이미 구체적인 이농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정부가 21세기 희망적인 농정을 펼치고 농사가 수지맞는 산업이란 인식을 갖게 한다면 이농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자녀들에게 농업을 대물림하겠느냐는 질문에 5.7%의 응답자만 ‘농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응답했고, 68.6%의 응답자는 ‘자녀의 뜻대로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많은 응답자가 자녀들의 재능이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답함.
- 농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안정적인 공무원을 꼽았고, 그 외에 엔지니어, 사업(자영업), 회사원, 교사(교수) 순으로 조사되어 부모들은 비교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4. 1999년 농정전반에 대한 농업인 의식

- 그 동안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농업정책 중 가장 성과가 컸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복수로 응답케한 결과 ‘농가부채 및 농업인 연대보증 문제’라고 응답한 농업인이 3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농정조직개편과 규제완화 등 제도개혁’(31.4%),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및 유통구조 개혁’(16.5%),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7.2%), ‘해외시장 개척과 농산물 수출지원 확충’(5.5%), ‘국제 농산물 협상에 적극 대응’(4.3%)으로 조사됨.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가 농업인 연대보증 해결을 위해 6조 8,400억원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하는 농업인 연대보증 및 연체채무 해소 대책을 8월에 발표했고, 협동조합, 농업기반공사 등 농업인의 영농과 직결된 조직개편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결과로 판단됨.
- 반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 중 미진한 것은 ‘농가부채 및 농업인 연대보증 문제해결’이라고 응답한 농업인이 23.5%로 가장 많아 정부에서 펼친 부채정책이 농업인들의 기대에 미흡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는 1999년 12월에 발표된 2차 부채대책 발표로 상당히 해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제농산물협상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미진하다는 응답자가 16.6%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WTO 차기 협상이 열리기 전에 이번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제 농산물 협상에 대비하는 현상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그 외 ‘농정조직 개편과 규제개혁완화 등 제도개혁 미진’(12.2%)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관련제도 개혁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현재 관련 기

관의 통합작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IMF 2년째를 맞는 올해 우리의 농업경영 여건이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24.6%이고 ‘악화되었다’는 응답자가 25.6%, ‘변화가 없다’는 응답자가 49.8%에 달해 아직 많은 농업인이 농업경영여건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농업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은 ‘농가부채 누적’(33.2%)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그 외에 ‘각종 농자재 값 상승’(23.4%), ‘농산물 값 하락’(18.6%),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비 부담 증가’(12.2%) 순으로 조사됨.
- 정부가 2차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마련, 올해부터 2004년까지 45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느끼기에 어떤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해야겠느냐는 질문에 ‘농촌 지역 개발과 농업인 복지지원’(29.4%),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 등 농업인 경영안정’(25.2%), ‘농림업의 생산기반 시설확충’(18.3%), ‘농림산물 유통개혁 및 수출농림업 육성’(15.3%), ‘건설한 농림업경영체 육성’(5.7%), ‘농림 기술개발지원’(4.5%) 순으로 나타남.
- 농업인 연대보증 해소를 위해 6조 8,400억원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하는 농업인 연대보증 및 연체채무 해소대책을 지난 8월에 발표한 사실에 대해 88.9%의 응답자가 알고 있었으며, 이 대책이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80.6%의 응답자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조금 줄일 것 포함)’이라고 응답해 농업인 연대보증 및 연체채무 해소 대책이 농업인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정책으로 조사됨.
- 정부가 시행한 농가부채경감대책 중 농가 입장에서 가장 실효를 거두

고 있는 정책은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농업인 연대 보증 해소 대책’을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30.3%의 응답자가 답했고, 그 외에 ‘금리인하정책’(29.3%), ‘부채상환 연기’(27.0%), ‘농축 인삼협 예탁·출자금 비과세 시한 연장’(8.5%), ‘자금지원 확대’(5.0%) 순으로 응답함.

- 1999년 11월말부터 시작된 WTO 농산물 차기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할 사안은 46.2%의 응답자가 ‘쌀 수입제한 예외조치 유지’라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 ‘농업보조금 감축 최소화’(24.8%), ‘농산물 관세의 단계적 감축’(14.9%),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13.4%) 순으로 답함.
- WTO 농산물차기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에서 83.8%에 달한 반면, ‘유리 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함. WTO 농산물 차기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뒤서 추진해야 할 부분은 ‘우리 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나라와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5.6%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공감대 형성’(27.1%), ‘협상 인력의 전문성 확보’(22.1%), ‘협상 관련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12.0%) 순으로 응답함.
- 2001년부터 쌀 농가 직접지불제가 도입되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72.3%의 응답자가 ‘크든 작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14.4%만이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응답함.
- 쌀 농가 직접지불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수매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는데도 쌀 농가 직접지불제 도입을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50.8%의 응답자는 ‘찬성한다’고 답했고, 22.2%의 응답자는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27.0%의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수 1백명 이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65.2%의 응답자가 ‘지역 실정을 감안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17.7%의 응답자는 ‘통폐합이 바람직하다’, 8.5%의 응답자는 ‘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7.5%의 응답자는 ‘현재보다 학교를 더 확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 최근 잇따라 농촌 지역 보건진료소가 폐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농업인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47.8%의 응답자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7.4%, ‘보건진료소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9.4%, 반면에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쳐 농업인들이 고통이고 농촌의 의료시설이 부족해 농촌지역 보건진료소 폐지에는 부정적 견해를 가진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계란 및 육계 가격의 폭락 원인과 대책⁸⁾

1. 최근 동향

1.1. 계란

- 계란가격은 1998년 9월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1999년 4월까지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산란계 농가의 강제환우(털갈이)등으로 산란계 사육수수가 증가하였으며, 금년 5월 이후 계란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11월 현재 생산비 이하의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 산란계 총 사육마리수는 1998년 9월 44,226천수에서 1999년 9월 현재 51,162천수로 15.7% 증가하였으며, 월별 산란계 사육수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98년 3/4분기에 464천톤에서 99년 동분기 513천톤으로 10.6%증가하였음.

월별 산지 계란가격과 산란계 사육수수 추이 비교

구분	98.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란가격	1,067	877	895	792	678	767	716	819	1,044	949	852	895
산란계수	-	-	47,114	-	-	45,893	-	-	44,226			45,923
배합사료	170	152	171	170	163	166	151	150	163	163	160	185
실용계수	2,117	2,869	3,903	3,275	2,868	836	3,115	3,135	3,132	3,502	3,341	3,122
중계수수	26.2	16.6	80.0	20.0	82.4	10.0	20.8	78.0	37.5	86.5	33.5	63.5
구분	99.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란가격	890	1,056	936	941	848	719	613	668	716	600	687	-
산란계수	-	-	47,503	-	-	49,650	-	-	51,162	-	-	-
배합사료	173	165	182	185	179	174	173	166	174	-	-	-
실용계수	2,720	2,918	3,710	3,192	3,261	3,124	3,457	3,463	3,617	3,082	-	-
중계수수	121.4	46.0	52.6	0.0	39.0	0.0	155.0	31.5	20.0	93.0	-	-

주) 이 자료는 농산업경제연구부 정민국 책임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자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e-mail: mkjeong@kreisun.krei.re.kr으로 연락

- 1999년 4/4분기 산란 실용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1/4분기의 산란중계 생산수는 220천수로 전년 동기 122.8천수 보다 79.2%증가한 상황이며, 내년 2/4분기 산란실용계에 영향을 미칠 3/4분기의 산란중계 생산수는 229천수로 전년 동기 대비(136.3천수) 68.0%증가하여 종계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의 계란가격도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1.2. 육계

- 산지 육계가격은 1998년 말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금년 4월 1,620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함. 이에 따라 육계 사육수수가 크게 증가하고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나 8월 이후 육계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11월 현재 생산비 이하의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 육계 총마리수는 9월 현재 42,446천수로 전년 동기(33,034천수)대비 28.5%증가하였음. 월별 육계 사육수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육계배합사료 생산량은 4월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7월 157천톤을 생산하였으며, 그 이후 약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99년 3/4분기 육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513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증가하였음.

월별 산지 육계가격과 사육수수 추이 비교

구분	'98.1	2	3	4	5	6	7	8	9	10	11	12
육계가격	1,248	1,441	1,662	1,363	1,294	1,167	1,390	1,238	1,101	1,233	1,382	1,450
육계수수	-	-	32,781	-	-	41,578	-	-	33,034	-	-	34,671
배합사료	87	76	86	103	118	138	135	106	96	89	91	105
종계수수	250	188	273	309	256	250	285	342	317	296	236	242
구분	'99.1	2	3	4	5	6	7	8	9	10	11	12
육계가격	1,422	1,554	1,535	1,626	1,259	1,019	1,190	1,393	887	837	814	-
육계수수	-	-	36,736	-	-	51,508	-	-	42,449	-	-	-
배합사료	90	87	106	121	132	154	157	127	117	-	-	-
종계수수	212	329	379	381	308	317	279	351	388	-	-	-

- 육용종계 입식수는 1999년 9월 현재 2,939천수로 전년동기 대비 19.0%증가하였으며, 금년 4/4분기에 영향을 미칠 지난 1/4분기의 종계입식수는 920천수이며, 내년 1/4분기에 영향을 미칠 2/4분기 종계입식수는 100만수로 전년동기 대비 23%증가함.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도 육계가격의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 가격하락 원인

- 최근 계란 및 육계가격의 폭락은 공급측면에 주요 원인이 있음.
 - 계란가격은 지난 6월 여름철 비수기 시작되는 가운데 노계도태 지연 및 신계군의 증가 등으로 산란계 마리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폭락
 - 육계가격은 여름철 성수기 이후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육계사육 마리수는 계속 증가였으며, 닭고기 수입도 당초 예상물량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큰 폭으로 하락함.

1999년 월별 닭고기 수입현황 및 육계시세

단위: 톤(검역기준),원/kg

	1	2	3	4	5	6	7	8	9	10	11
수입량	2,344	1,906	3,544	3,920	5,966	5,742	4,441	2,976	2,559	3,824	3,998
가 격	1,422	1,554	1,535	1,626	1,259	1,019	1,190	1,393	887	837	814

- 1997년 7월 닭고기 시장이 완전개방됨에 따라 육계가격이 조금만 좋아지면 바로 수입닭고기가 들어오는 상황임. 1997년 수입물량은 18,215톤이었으며, IMF로 인하여 경기가 위축되었던 1998년은 11,729톤이었음. 그러나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육계가격이 연초 강세를 보임에 따라 1999년 11월 현재까지 41,220톤이 수입되었음.
- 산지의 육계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의 닭고기 가격은 큰 폭으

로 하락하지 않아 가격인하로 인한 소비량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한 원인 되고 있음.

3. 대책

- 현재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는 계란 및 육계가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산감축 및 소비촉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임.
 - 계란생산량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부화업계 및 채란 농가의 생산 감축 노력이 자발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 닭고기 생산조절을 위해 병아리 입식 감축노력과 함께 종계중 노계의 도태를 계속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 육계 계열업체가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육계계열화 업체가 육계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6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종계부분에서는 40%(200만수)를 차지하고 있어, 계열화 업체가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계생산 능력의 제고와 함께 기존 종계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양계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이 필요함. 계열화업체 등이 수매비축을 통하여 산지가격을 단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장기비축은 재고부담으로 인하여 장기수급조절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장기저리의 수매비축자금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변 확대를 위해서는 축협, 양계협회, 육계협회 등이 자조금(정부보조 50%)을 이용하여 계란 및 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야 할 것임.
 - 국내산 닭고기의 위생성 및 안전성 등 수입닭고기와의 차별화 홍보와 소비자의 선호를 제때에 파악하여 상품개발과 수요를 창출해야 함.

- 적극적으로 닭고기 수출을 추진해야 할 것임. 수출시장을 조사분석하고, 양계산업 관련 각종 규제제도와 조세들을 닭고기 수출국 수준 이상으로 개선시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중국산 고추 ; 마늘의 생산 및 수출입 동향⁹⁾

1. 고추

- 고추는 세계적으로 1,600여만톤 생산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중 중국이 700만톤을 생산하여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주로 산둥, 운남, 하남, 사천, 호북, 강서, 안휘성 등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 소비되는 고추와 비슷한 품종은 익도산으로서 산둥성에서 생산되고 있음.
- 중국으로부터 건조/분쇄하지 않은 고추 수입은 1995년 4,653톤, 1996년 4,965톤, 1997년 3,960톤, 1998년 5,288톤, 1999년 11월까지 6,082톤이 전부 중국 산둥성에서 수입되고 있어 중국의 고추생산량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음.

1.1. 중국의 고추 생산 동향

- 산둥성의 '98년산 고추 총생산량은 약 5만톤으로 주로 평도, 교주, 안구, 주청, 고미, 창이 등에서 생산되고 있고, 이 중 한국, 일본 및 동남아에 수출할 수 있는 익도산은 2만 5천톤 생산되었음.
- 1999년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증가하였으나 8월 이후 비가 자주 내리고 일조부족으로 주당 착과수 및 과장, 과폭이 적고, 색택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은 약 2만톤으로 작년대비 20% 감소한 수준임.
- 지역별로 보면 평도지역은 작년에 1만2,400톤에서 금년은 9% 감소한

주)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연중 책임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자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e-mail: yjkim@kreisun.krei.re.kr으로 연락

1만 1,300톤, 교주는 작년 8천톤에서 금년 6천톤으로 25%감소 했고, 기타지역은 5천톤에서 3천톤으로 감소하였음.

- 익도산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평도지역의 1999년 재배면적은 작년대비 30% 증가했으나, 단수가 작년보다 30% 감소하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9% 감소한 1만 1,300톤 수준임. 연도별 단수는 1996년에 375kg으로 매우 높았고, '97, '98은 평년작 수준이었으나 금년은 240kg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평도지역의 고추 재배현황 및 가격

	재배면적(ha)	단수 (kg/10a)	생산량 (톤)	11월 가격 (인민폐원/톤)
1996	4,700	375	17,625	-
1997	3,600	345	12,420	-
1998	3,600	345	12,420	8,000
1999	4,700	240	11,280	7,500~8,000
1999/1998 증감률(%)	30.5	△30.4	△9.2	0

1.2. 생산의 특징

- 중국의 고추 재배방법은 육묘 후 정식하는 경우와, 직접 파종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직접 파종하고 있으며, 육묘 후 정식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임. 한국의 평당 주수는 12주(45cm×60cm), 중국은 40주(25cm×30cm)이며, 주당 수확 과는 한국은 45개, 중국은 30개 정도이고, 중국산 고추의 특징은 과육이 두껍고 색택이 좋은 것이 특징임.
- 국내산 고추의 특징은 1년에 약 6~7차례 수확하고 있으나, 중국은 생육과정에는 수확하지 않고, 서리가 내리기 1주일 전에 한번에 고추 나무를 뽑아 수확함. 수확 후 1주일 동안 쌓아 두면 고추 수분이 24~26% 정도로 건조되고, 쌓아 둔 채로 30일이 지나면 18%까지 수

분함량이 떨어지게 됨. 따라서 중국의 고추 성출하기는 12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함.

1.3. 산지가격 동향

- 금년산 고추생산량은 작년보다 적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작황이 좋지 않아 품위가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떨어져 가격은 작년 11월 수준보다 약간 낮은 7,500~8,000원(인민폐/톤) 수준임. 이 수준은 현재 수분함량이 24~26%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고, 수분함량이 18%로 되는 1~2월 가격은 10,000~11,000원(인민폐/톤)이 될 전망이다.

1.4. 수출 현황

- 중국의 익도산 수출은 일본, 한국, 동남아 지역이 대부분이고, 상품 고추는 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품은 한국에, 하품은 동남아 지역에 수출하고 있음. 1998년산 고추의 일본 수출량은 1천톤 정도이고, 톤당가격은 14,000원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다(일본에 수출할 경우 꼭지 및 씨 제거로 한국 및 동남아에 수출할 경우 보다 15% 감량을 고려해야 함).
- 동남아 수출은 2,000톤 정도이며, 주로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톤당 가격은 6,000원 수준이었고, 한국에 수출물량은 작년에 약 6,000톤 정도이며, 톤당 가격은 8,000원 수준임.
- 금년산 11월 하순 현재 중국 산지 거래가격이 8,000원(인민폐/톤)일 때 물품대 1,120원/kg, 관세 6,555원/kg, 운송비 240원/kg, 제경비 110원/kg으로 총수입원가는 8,025원/kg(근당 4,815원) 수준임. 금년산 1~2월 중국 산지 거래가격이 10,000~11,000원(인민폐/톤)으로 상승

했을 때, 물품대 1,400~1,540원/kg으로 민간 수입원가는 600g당 4,900~5,100원 수준으로 국내산 태양초 상품가격과 비슷한 수준임. 중국산 태양초는 국내산 보다 품질이 좋기 때문에 국내산 가격과 비슷하면 민간수입량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기타 중국 고추 산지 동향은 1998년산 재고(목초)량이 2,000~3,000톤으로 추정되며, 품질이 양호한 물량이고 kg당 거래가격은 13,000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음.

2. 마늘

- 마늘은 세계적으로 1,200여만톤 생산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중 아시아가 1,000만톤으로 83%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중국이 약 900만톤으로 세계의 75%를 생산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주로 하남성, 산둥성, 강소성 등에서 생산되며, 수확시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5월 하순~6월임. 그 중에서 산둥성 마늘이 한국산과 비슷하여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서 마늘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
- 중국으로부터 신선·냉장 상태로 수입한 마늘은 1995년 5,789톤, 1996년 4,156톤, 1997년 12,919톤, 1998년 25,623톤, 1999년 11월까지 14,355톤으로 중국 마늘 생산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음.

2.1. 마늘 생산 동향

- 한국에 수출되고 있는 한지형은 산둥성의 창산, 거현지역이고, 강소성에 태창, 상해의 가정지역에서 생산됨. 난지형은 산둥성의 금향, 하남, 중목, 계봉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음.

- 산동성의 창산지역은 1999년산 마늘재배면적이 1998년 재배면적보다 8% 증가하였고, 금향은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000년 파종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금향 2만 7천ha, 창산 1만ha, 하남 1만ha로 총 4만 7천ha로 추정됨.

지역별 마늘 재배면적 및 단수 변화

단위: ha, kg

	창 산(한지형)		금 향(난지형)	
	재배면적	단수	재배면적	단수
1996	8,700	600	10,000	1,350
1997	8,700	600	16,700	1,350
1998	9,300	600	23,300	1,350
1999	10,000	750	26,700	1,500
2000	10,000	750	27,000	-

주: 2000년 재배면적은 추정치임. 1999년 한국 한지형 단수 : 665kg, 난지형 단수 : 1,317kg

2.2. 생산의 특징

- 산동성 마늘의 파종 및 수확시기는 난지형의 경우 휴면기간이 짧고, 마늘쪽은 10~12개 정도이며, 매운 맛이 적고 저장성이 약한 반면 한지형은 휴면기간이 길고, 월동전에 싹이 트지 못하고, 마늘쪽수는 6~8개 정도이고 매운 맛이 강하고 저장성도 강함.
- 난지형의 파종시기는 9월 중순이고, 수확시기는 5월 중하순이며, 한지형의 파종시기는 9월말~10월초이며, 수확기는 6월 중하순으로 우리나라의 파종시기 및 수확시기 비슷함.

마늘 품종별 재배시기

	파종시기	수확시기
난지형(10~12쪽)	9월 10일 ~ 9월 15일	5월 15일 ~ 5월 25일
한지형(6~ 8쪽)	9월 25일 ~10월 5일	6월 7일 ~ 6월 25일

2.3. 산지가격 및 수출 동향

- 중국에서 11월 현재 거래되고 있는 피마늘 산지거래가격은 보관료 5개월분을 포함하면 톤당 1,500원(인민폐) 수준임. 창산에서 부산항을 통해 수입될 경우 도착가격은 kg당 피마늘은 343원, 깎마늘은 617원, 냉동마늘은 456원이다. 관세는 피마늘에는 종량세 1,900원, 깎마늘은 양허세율 380%, 냉동마늘은 잠정긴급관세 315%를 부과하고, 물류비용은 도착가격에 각각 10%를 더하면 피마늘 수입원가는 kg당 2,277원, 깎마늘은 3,024원, 냉동마늘은 1,938원으로 추정됨.
- 5월에서 11월까지 국내산 가격이 매우 낮아 중국산 신선·냉장 마늘의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0배 적은 2천톤에 불과함.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게 수입된 량임.
- 반면 냉동마늘은 30%의 저율관세가 부과되어 11월의 수입원가가 kg당 590원 수준이므로 5~11월에 1만 2,100톤이 수입되어 작년 동기보다 2.6배 많은 수준임. 더욱이 잠정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직전 10~11월에는 6,560톤이 일시에 수입되어 국내 마늘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중국산 마늘의 수입원가

단위: 원/kg

	도착가격	관세	물류비용	수입원가
피 마 늘	343	1,900	34	2,277
깎 마 늘	617	2,345	62	3,024
냉동마늘*	456	1,436	46	1,938

주 : * 표시의 냉동마늘은 잠정긴급관세가 부과된 가격임.

국제 농산물 협상 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입장¹⁰⁾

1.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 1999년 11월 17~18일에 열린 제21차 공식회의는 유럽연합, 일본, 아르헨티나, 태국 등 16개 회원국의 농업협정 이행 통보 안에 대해 점검함.
 - 인도네시아, 일본, 남아공화국, 태국 등의 관세율 쿼터(TRQ) 관리에 대한 점검에서 수출국들은 주로 낮은 쿼터량 충족(quota-fill)에 관해 질의함.
 - 유럽연합의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SG) 발동과 관련해서 뉴질랜드와 미국은 가격기준 SSG 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함.
 - 아르헨티나의 담배특별기금에 의한 투자보조 등이 농업협정 부속서 2의 허용보조 요건에 합치되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음.
- 일본의 쌀 수입관리와 관세화 정책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평하게 시행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우루과이는 일본이 어떤 기준으로 쌀 최소시장접근(MMA) 수입물량을 수출국에 각각 배분하는지에 관해 설명을 요구함.
 - 일본은 SBS 방식과 식량청(Food Agency)에 의한 수입방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SBS 방식은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근거한 수입이고 식량청에 의한 수입방식은 국내수급 여건에 따라 수출국, 품종, 품질 등을 지정한 것으로 답변함.
 - 이에 대해 우루과이는 일본의 쌀 수입관리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면서, 특정 수출국에 대한 수입물량 배분에 불만을 제기함.

주) 이 자료는 국제농업연구실 임송수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자료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e-mail: songsoo@kreisun.krei.re.kr으로 연락

2. WTO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 1999년 11월 30~12월 3일에 미국 시애틀에서 제3차 WTO 각료회의가 열려 새로운 다자무역 협상의 범위, 방식, 일정 등에 관해 논의했으나, 각료회의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해 결국 결렬됨.
- 농산물 분야에 대한 논의는 10월 7일 제안된 WTO 의장의 초안을 중심으로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나, 수출보조 등에 관해서는 합의하지 못함.
- 회원국 사이에 합의된 많은 사항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농업협상의 방향과 범위 설정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협상의 기본방향은 농업협정의 서문(Preamble)과 제20조에 근거해 설정하기로 합의함.
 - 의장 초안에서 수출국은 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을 공산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입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논의를 통해, 이와 같은 수출국의 주장은 삭제하기로 결정함.
- 시장접근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자유화에 이르는 포괄적인 시장접근 협상’을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에 합의함.
 - 의장 초안은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낮은 관세와 높은 관세, 역관세 (tariff escalation: 원료 농산물보다 가공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상당수준 감축해 없애도록 하고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함.
 - 수출국은 의장 초안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에 지지를 나타낸 반면, 수입국은 시장개방 분야에 협상을 한다는 원칙만을 포함하도록 주장했는데, 수입국의 주장이 주로 반영됨.

- 국내보조는 농업협정 제20조에 명시된 대로 ‘상당히 점진적으로 (substantial progressive)’ 줄여 나가기로 합의함.
 - 의장 초안은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상당히(further substantial)’ 줄이도록 명시함.
 - 수출국은 국내보조를 상당 수준으로(substantial) 줄이거나 없애야 (elimination) 한다고 주장한 반면, 수입국은 국내보조에 관해 협상한다는 원칙만을 포함하도록 주장했는데, 양측의 절충안이 반영됨.

- 수출보조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의장 초안은 수출보조를 추가적으로 상당히 줄임으로써 결국 없애야 한다고 밝힘.
 - 수출국은 수출보조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유럽연합 등을 비롯한 수입국은 수출보조의 감축만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그 용어 자체가 반영되지 않은 대신에, 비교역적 기능(NTCs)으로서 기존의 식량안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발전과 식품안전이 추가로 포함됨.
 - 의장 초안은 농업협정에 따라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의 비교역적 기능을 감안하도록 함.
 - 수출국은 의장 초안을 지지한 반면, 수입국은 다원적 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원적 기능이란 용어가 자체가 채택되지 않음.

- 우리 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와 관련해 농업협정 부속서 5에 따라 2004년에 재협상 한다는 원칙을 확인함.
 -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쌀 관련 회원국과 모임을 통해 우리 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조치가 차기협상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2004년에 재협상 한다는데 동의를 얻어냄.

3. 관찰과 평가

-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를 통해 차기 농업협상의 추진 방향이 상당 수준으로 정립됐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분야에 대한 합의는 대체로 UR 때의 접근방식과 개혁방향이 차기 농업협상에서도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수출보조에 대해서는 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케언즈 그룹과 이를 지키려는 유럽연합 사이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에 따라 차기협상에서도 수출보조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나라, 유럽연합,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주요 수입국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염려한 수출국들의 반대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
-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포괄적인’ 시장접근과 ‘점진적인’ 국내보조 감축에 대한 합의, 쌀 관세화 유예조치의 2004년 재협상 확인 등은 성과이지만, 다원적 기능의 반영 실패는 손실임.
 - 차기협상에 대한 우리 나라의 접근방법은 농업협정 서문과 제20조에 근거한 점진적인 무역자유화와 농업정책 개혁,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반영,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해관계에 관한 공평한 처리 등임.
- 이번 회의에서 나타난 수입국들의 공조체제는 차기 농업협상이 미국 및 케언즈 그룹 등 수출국들이 주도했던 UR 협상 때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함.
 - 수입국 사이에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합의 준수로 수입국의 공동의견이 이번 회의에서 많이 반영됨.
 -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주장하는 주요 5개국(Friends of

Multifunctionality: 우리 나라, 유럽연합,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의 공조체제가 돋보였으며, NGOs의 연대도 논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각료회의의 결렬과 상관없이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는 UR 협상에서 정한대로 2000년부터 추가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
- 앞으로 일정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회원국의 협의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나라와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점검해야 할 것임.

4. 차기 농업협상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4.1. 미국

- 농산물 최대 수출국으로서 농업보호 및 보조 수준을 줄여 무역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둠.
- 차기협상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수출보조금의 철폐
 - 국영무역에 대한 규제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추가적인 관세 감축
 - 시장접근물량의 관리제도 개선
 - 국내보조 수준의 감축
 -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 보장
 -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 확대

4.2. 케언즈 그룹

-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15개 농산물 수출국으로 구성돼 농산물 무역의 완전한 자유화를 주장하면서, 농업보조와 보호가 환경과 개발 및 식량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함.
- 차기협상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수출보조금의 철폐
 - 농산물 관세를 공산품 수준으로 대폭 감축
 - 국내보조의 대폭 감축
 - 모든 비관세 장벽의 철폐
 - 동식물 검역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4.3. 유럽연합

- 유럽 15개 회원국들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1999년 3월에 최종 승인한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인 'Agenda 2000'을 근간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밝힘.
- 차기협상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블루박스, SSG, 평화조항(농업협정 제13조)의 유지
 - 농업의 다원적 기능 보장
 - 동식물검역(SPS) 협정의 개정을 통한 식품안전 확보
 - 동물복지(animal welfare) 조치의 강구

4.4. 일본

- 쌀의 과잉채고를 막고 차기협상에서 교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쌀 수입자유화를 단행한 일본은 적절한 식량자급률의 유지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차기협상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블루박스의 유지
 - 식량안보 보장
 -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의 강화 등을 통해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 확보
 - 농업의 다원적 기능 보장

4.5. 개도국

- 많은 개도국들은 UR에 의한 무역자유화 추구가 개도국 이익에 전혀 이바지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실제적인 혜택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함.
- 차기협상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개도국 우대 조치(S&D)의 유지 또는 강화
 - 선진국에 대한 개도국의 시장접근 기회 확대
 - 개도국 농업의 특수성 인정
 - 엄격한 동식물 검역, 재산권 등에 관한 개도국 우대

4.6. 관찰과 평가

-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기존의 농업협정에 근거해 계속 추진될 의제에 관해서는 미국, 케언즈 그룹,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의 입장과 협상 목표가 뚜렷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에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번 시애틀 회의에서 수출보조금에 관해 미국·케언즈 그룹과 유럽연합이 양보 없이 대립했던 사실은 기존의 의제에 대한 협상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줌.
- 농업의 다원적 기능, GMOs와 식품안전, 동물복지 등 새로운 의제로

제시된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분과 합의도출 및 규정설정(rule-making)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이 예상됨.

- 개도국의 입장에서 UR 농업협정의 이행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기협상에서 개도국의 의견이 적극 개선될 것이며, 공조체제에 바탕을 둔 수입국의 대응도 강력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WTO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이후의 전망과 과제¹¹⁾

1. 결렬 이유

(1) 자유무역의 성과를 체감할 수 없는 현상

- 대부분의 국가는 자유무역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라운드가 실패해도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확산되고 있음. 특히 개도국은 자유화가 진행할수록 선진국에 이익을 빼앗긴다는 우려가 강함.
- 미국은 자유무역으로 당면은 성과를 누리고 있으며, 국내 경기도 호전, 차기협상에서 손실을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EU·일본은 농업 분야의 이해에 지나치게 집착, 전체 협상을 선도할 수 없는 입장임.

(2) 자유무역을 둘러싼 대립구도가 UR보다도 더욱 복잡

- 결렬의 시작은 NGO, 마무리는 개도국이라고 할 정도로 UR에서는 영향력이 없었던 NGO와 개도국이 2대 세력으로 등장한 점이 특징임. NGO는 “자유무역이 환경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개도국은 선진국 중심의 회의운영방식에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중시하는 무역과 노동기준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 각료회의 결렬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 지금까지와 같은 선진국 관료의 이해조정방식에서 개도국·시민 등도 포함한 복잡한 구도 속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였음

주) 이 자료는 농촌발전연구부 김태곤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자료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e-mail: taegon@kreisun.krei.re.kr으로 연락

며, 향후 개도국과 NGO의 제안 능력과 선진국의 수용자세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3) 의장국 미국의 노력 부족

- 결렬의 원인 중 하나는 의장국 미국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내년 11월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자국의 노동자와 시민들의 요망을 지나치게 우선시켰다는 비판이 있음.
- 각료회의 기간에 150여명의 미국 의원이 시애틀을 방문, 회의를 빈번하게 개최, 바세프스키 의장이 순회 인사하느라 의장으로서 사무작업을 게을리 한 점도 원인임.
- 회의중 방문한 클린턴 대통령도 자국의 노동자와 농민에게 “노동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언, 개도국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음. 농업, 반덤핑, 노동 등 조정에 난항이 심했던 분야는 모두 미국이 강경한 주장을 한 분야임.

2. 시애틀에서의 대립구도

- ① 농업 : 급속한 자유화 신중(한국, 일본, EU), 자유화 추진(미국, 케언즈)
- ② 반덤핑조치 : 개선 찬성(일본, EU, 개도국), 개선 반대(미국)
- ③ 노동기준강화 : 강화 찬성(미국), 반대(개도국)
- ④ 투자를 설정 : 룰 설정(일본, EU), 반대(개도국)

3. 농업분야의 대립구도와 최종 의장안

(1) 농업분야의 대립구도

- 농업분야에서 자유화를 급속히 추진하려는 그룹과 신중히 추진하려는 그

룹간의 대립이 첨예화됨.

농업분야의 대립구도

항 목	자유화 추진파(미국·케언즈)	자유화 신중파(한국, 일본, EU)
협상진행방식	농업보호의 실질적 감축을 지향	비교역적 관심사항도 중시
다원적 기능	언급 없음	국토보전등 다원적 기능 배려
수출보조	모든 보조금 철폐	모든 보조금 감축
국내농업보조	실질적인 감축	더욱 감축
개도국 대책	특별히 배려	특별히 배려

(2) 각료선언 농업분야 최종안(요지)

- 신라운드는 기간을 3년으로 하고, 2000년 1월 1일에 시작함. 협상은 일괄수락방식으로 하고, 투명성과 균형을 중시함.
- 농업에 대한 보조·보호의 실질적·점진적 감축을 통하여 농산물 무역개척을 계속하고, 세계무역시장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WTO 룰과 규율에 근거한 공정하고 시장지향형 농업무역체도를 창설함. 개도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함.
- 협상에서는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중시함. 이것은 환경보호, 식량안전 보장, 농촌지역 개발, 위생에 관한 협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식품안전성을 포함함.
- 협상방식은 2001년 7월까지 합의함. 참가국은 2002년 1월 31일까지 포괄 제안을 제출하고 약속과 범규제에 관한 협의는 2002년 12월 15일까지 종료함.

4. 결렬에 대한 일본 입장

(1) 3성의 의견차이

- 일본은 협상대표로 참가한 3성(외무성, 통산성, 농림성)간에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음. 외무성은 일미간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미국에 양보해야한다는 입장에서 곤혹스런 표정임.
- 통산성은 일본의 주장에 개도국이 동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미관계만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덤핑문제로 마찰이 빈번한 점도 있어 결렬에 대하여 안도하는 표정임. 또 농림성도 안도하는 입장임.

(2) 농림성 입장

- 농림성은 ① “농산물을 광공업과 동일한 틀 아래에 둔다”는 일부 국가의 주장은 농업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②차기 농업협상은 농업협정 제20조에 근거해야 한다, ③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고려되어야 한다, 는 점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상기 ①과 ②는 일본의 주장대로 반영되었으며, 일본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③에 대해서는 「다원적 기능」이라는 용어는 제외되었지만 일본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는 국가가 늘어났고, 특히 다원적 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인 식량안전보장, 환경보호, 농촌지역 활성화 등에 대해서 각국의 이해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농림성은 쌀 관세인하 등 대폭적인 자유화 반대를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대항하였음. 한국, EU 일부 국가의 지지로 위험한 상황에서 다원적 기능을 다시 백지에서 반격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어 안도하는 입장임.

5. 향후 협상시점 전망

(1) 미국의 주장

- 미국은 WTO 협정대로 농업·서비스만 2000년 1월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농업·서비스분야에 한정하여 UR 이후 수출이 급증한 케언즈 그룹과 연합, 일본·EU에 대하여 공세를 가한다는 전략임.

(2) 일본의 전망

- 타마자와(玉澤) 농림성 장관은 내년초 출발은 곤란하며, 다원적 기능관철을 약속하고 있는 점도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 경우 미국의 신정권이 발족하여 무역정책이 결정되는 2001년 1월 이후 시작될 것이라는 설이 부상하고 있음(WTO사무국, 일본, EU).
- 일본은 장기적으로는 WTO체제가 지속하는 편이 이익(자동차·철강 등 미국의 일방적 요구·제재 회피)이나, EU·개도국의 강경한 입장을 무시하고 자국만의 이익을 고려, 안이하게 타협하는 것도 자국산업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3) 예상되는 문제점

- 현재까지는 2001년 1월, 미국의 신정권 발족까지 차기협상에 대한 협의는 「동결」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음.
-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각료선언문의 「동결」과 WTO 농업협정과의 관계임. 협정에서는 2000년 1월부터 농업·서비스에 한정하여

출발할 예정이었음. 때문에 각료회의의 동결을 존중할 것인가, 협정을 우선할 것인가, 가 어려운 선택이 될 것임(WTO사무국).

- 만약 2000년 1월부터 농업협상이 시작된다고 해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예상되나, 그 중 하나가 각료회의에서 만들어진 「의장안」에 대한 취급임. 이 안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다원적 기능이 제외되어 있음. 바세프스키 USTR대표는 “의장안에 대하여 거의 합의되었다”고 강조, “의장안을 출발안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타마무라 일본 농림성 장관은, “각료회의 결렬로 의장안도 동결. 협상의 시작은 농업협정 20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만약 1월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차기 각료회의까지는 대립이 지속될 것임.

6. 요약 및 향후 과제

- 시애틀에서의 각료선언문 채택이 실패하여 2000년 1월 예정이던 차기 협상의 시작은 불투명해졌으며, 일부에서는 미국의 신정권이 발족하는 2001년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의장안은 거의 합의되었다”(바세프스키 의장)는 주장과 “선언문 채택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의장안은 무의미하다”(일본, EU)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됨.
- 결렬을 계기로 일본은 WTO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음. 현행 선진국 중심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개도국이 반발, 결렬의 원인이 된 점을 감안하여 개도국을 「그린 룸」(특정국회의)에 참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협상방식에서 미국은 개별협상, EU·일본은 포괄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그러나 추진력이 떨어져 난항이 예상됨. 또 135개국만 만장일치로 하는 WTO의사결정방식도 이번 각료회의에서 한계를 나타냈음. 무역 자유화의 추진력이 감속한데다, 중국이 가입하면 더욱 복잡해지는 구도가 될 것임.
- 우리 나라도 차기 협상전략을 재구축해야 할 것임. 우선, 135개 가맹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도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둘째,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셋째, 쌀 정책을 비롯한 국내농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1) 향후 개도국·NGO 동향에 주목해야 하고, 특히 협상전략 수립에 개도국과의 연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개도국 55개국이 각료회의시 선진국의 밑실에서 만든 합의안에 대한 서명거부 성명을 발표, 결렬의 계기를 조성한 바 있음. 중국이 개도국 리더역을 자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개도국의 지위는 더욱 강력해 질 것임.
- 일본은 최근 WTO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그린룸(특정국회의)」에 개도국을 포함하여 방침을 결정하였음. 따라서 우리 나라도 135개 가맹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도국에 대한 연대방안을 수립해두는 것이 농업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임.

(2)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야 할 것임.

-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지역간 관세·비관세장벽을 인하, 사실상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협정이며, 무역확대나 기업재편을 촉진하고 있음.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최근 WTO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각국이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현재 EU·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가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또 한국·칠레, 한국·일본을 비롯하여 일본·싱가폴, 싱가포르·뉴질랜드, 일본·멕시코 등이 검토 중에 있음.

(3) 신 라운드의 출발이 늦춰지면, 2004년 우리 나라 쌀 협상과 오버랩 될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쌀 협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당초 신 라운드는 3년간에 종료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나, 협상 시작이 늦어질수록 2004년의 우리 나라 쌀협상과 겹쳐질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대한 이해득실을 검토해 두어야 할 것임.
- 또 쌀 농업에 대한 경영안정정책, 직접지불제도 등 국내농정을 사전에 정비하여, 시장개방에 대한 안전장치(safety net)를 마련해 두어야 함.
- 일본은 농협의 제안으로 「국익우선」의 관점에서 1999년 4월에 이미 쌀 관세화를 단행한 바 있음. 또 시장개방에 따른 경영불안에 대비하여 도작경영안정대책, 맥작경영안정자금, 대두작경영안정대책,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소위 경영안정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농업·농촌경제동향 1999 겨울

찍은날 1999. 12. 30 펴낸날 1999. 12. 30
발행인 강 정 일
펴낸곳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문 원 사 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